

박종근 (당시 25세)



- 1963년 경북 상주 출생
- 1982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의학과 입학
- 1988년 방위병으로 입대
- 1988년 8월 1일 동사무소 창고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됨

◎ 사건경위

박종근은 1988년 2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 의사면허를 획득한 후 방위소집으로 50사단에 배속되어 1988년 6월부터 경주에 있는 중앙동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었다. 박종근의 집안은 부친이 상이군인으로 경제력이 없어 여동생이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박종근이 한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상이군인 자녀로서 학비가 면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정형편으로 인해 박종근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적은편이었다고 한다.

1988년 6월말부터 방위병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박종근은 1988년 7월15일부터 근무지 상사인 예비군 중대장 이이규, 권안정으로부터 한약을 지어올 것을 요구받았다. 이이규는 자신의 아들이 고3인데 어떤 한약이 좋은지를 묻고 좋은 한약이 있으면 지어오라는 식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박종근은 가정형편상 이들의 요구에 따를 수 없었고, 이에 자기신상에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해 7월30일에는 중대장의 요구를 마마하려고 중대장의 집을 찾아 갔으나 낯서 부재중인 관계로 그대로 돌아왔다. 이러한 사정을 전해 들은 박종근의 모친도 역시 7월31일 15만원 정도를 가지고 중대장을 찾아 갔으나 중대장이 귀가하지 않은 관계로 그대로 돌아온 사실이 있었다. 한편 박종근은 같은 해 7월31일 부대장에게 자신의 가정형편과 자신의 심정을 적은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이 편지는 그 다음 날 화재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대장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다음 날 8월1일 동사무소로 출근한 박종근은 8시경부터 청소준비에 바빴다. 당일은 새마을 청소날로 모든 부대원들이 아침부터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종근은 동사무소 옆에 위치한 창고에서 가져 온 청소도구를 동료들에게 넘겨준 후 다시 창고로 갔다. 얼마 후 창고에서 '핑' 하는 소리가 나고 연기가 피어 올랐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창고문을 열어 보니 창고내부가 불에 타고 있었고, 박종근은 이미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이때가 오전 8시15분경이었다. 곧 이어 박종근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하였다.

◎ 의문점

〈사건의 처리〉

군 검찰당국은 이 사건이 타살이나 사고사라 아니라 자살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그 이유는 첫째 화재현장은 누군가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 않고는 불이 날 수 없는 상태로 휘발유 이외의 인화물질이 없었다는 점, 둘째 화재발생 당시를 전후한 시각에 예비군 중대장은 창고 근처에 있지 않았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고인 진술에 의해 증명된 점, 셋째 일반적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 자살이 아닌 경우에도 불을 피해 보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남게 되

墓 穴 장

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넷째 화재발생시 자살할 의도가 없는 경우였다면 대개 불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출입문 근처로 향한 채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발을 문쪽으로 향한 채 반듯이 누운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점, 다섯째 사체의 기도과 식도에서 검정색, 갈색의 분진이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몸에 불이 붙은 후 질식사하기 전까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구원요청을 하지 않은 점, 여섯째 자살할 의도가 아니었다면 출입문 바로 바깥에 있는 수도전을 사용하여 충분히 불을 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들고 있다.

처음에 군당국은 이러한 근거를 인용하면서 박종근의 염세주의적 성격, 여자문제 그리고 가정문제로 인해 분신자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가족의 중요한 노력과 민간진상조사위원회 등이 활동하자 군검찰당국은 이 사건이 박종근이 평소 가정형편으로 인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하고 있었는데다가 상사의 요구를 들어 주지 못함으로써 자신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게 되자 여기에서오는 심리적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휘발유를 몸에 뿌려 분신한 데서 발생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말하자면 군당국이 자살에 대해 다소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검찰은 보약을 요구했던 이이규, 권안정을 공갈미수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박종근은 자살했다고 주장하였다.

〈의문점과 유가족의 대응〉

하지만 가족들은 박종근이 자살했다는 데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상사와의 갈등으로 타살되었거나 적어도 사고사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족이 생각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자살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상이군인으로서 상여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박종근은 한의대 6년을 졸업하였고, 독자로서 지금까지 뒷바라지해 온 부모님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욕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며, 가정은 늘 행복하였다. 사건 당시에 어떤 자살의 징후도 없었고, 유서도 없었다.

둘째, 최초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의 모습에 관한 진술에 모순이 있다. 소방서 화재조사관은 창고에서 사체를 끌어 냈을 때 머리가 문을 향했다고 했으나, 최초 목격자인 배기학이 다리가 먼저 보였다고 하자 증언을 번복하였다. 머리가 문쪽을 향했다는 것은 죽음의 순간에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증거가 된다.

셋째, 박종근의 사망 직후 헌병대 파견대장이 가족의 허락도 없이 집을 뛰쳐 중대장에게 보낸 서신과 비망록에 기록한 메모쪽지등 사건 단서가 될 만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넷째, 유족이 화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군당국이 임의로 화장을 한 것은 은폐기도가 아닌가 라는 의혹을 주었다.

다섯째, 군수사당국이 중대장과 헌병대장을 구속, 수사했는데 이는 타살의 심증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섯째, "핑"소리가 나며 동사무소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주위에는 신나나 휘발유통이 없었고, 경유를 담은 플라스틱 통이 불에 탄 채 발견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경유는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핑"소리가 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가 미리 휘발유를 창고에 뿌려 두었다가 나중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일곱째, 분신자살의 경우 보통은 상체와 하체는 화상정도가 다르지만 전면과 후면은 별로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박종근의 경우는 상체와 하체가 고르게 탔으며, 더구나 등쪽은 사체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이 붙었다고 한다. 이는 선 자세에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반듯이 누운 상태에서 불이 붙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살자가 취할 수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없다.

여덟째, 부검시에 뒷머리에 직경 5cm의 피명자국이 있었는데 이는 분신 이전에 실신상태였을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문점들이 많이 해소된다. 즉, 분신 이전에 실신상태에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분신자살로 위장했다면, 시신의 모양, 위치, 현장의 모양과 정황 등이 상당정도로 모순없이 설명된다.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가족들은 박종근이 자살했다기보다 타살되었다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이다. 한편

사망한 박종근의 친구 박진경은 8월2일경 유족들로부터 사고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을 전해 듣고 평민당에 찾아가 사실을 알리는 동시에 동국에 한의대생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에 1988년 8월12일경 평민당 인권위원회로부터 요구된 사인규명결과 회신의뢰서에 대해 사단헌병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유족과 학생측에서는 사건 축소, 왜곡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게 되었다. 이들은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 박종근이 어떤 이유에서든 혼수상태에 빠진 후 자살로 조작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었다.

유족과 학생들은 8월28일경 유인물 200매를 인쇄하여 경주시의 가정집들에 배포하는 한편, 이 사건을 여론화하기 위해 언론사 등에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사건이 신문기사화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는 자살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그리고 사건의 축소, 왜곡에 대한 의혹의 여지도 많다. 보다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었어야 하며, 적어도 당시 수사기록이 공개되었어야 했다.

양 영 진 (당시 21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67년 3월 16일	경남 함양 출생
1986년 2월	부산 동래고등학교 졸업
1986년 3월	부산대학교 국문학과 입학
1988년	국문과 학술부장 역임 전방 입소거부 투쟁
1988년 8월 10일	방위병 입대
1988년 10월 10일	재료관 5층 난간에서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양영진 동지는 88년 10월 조국에 대한 애뜻한 사랑과 이땅의 올바른 문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며, 8월15일 남북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지역 선전부 활동을 가열차게 전개하였고, 갑작스런 군입대로 인해 군의 폭력적 지배 방법, 법적 표현에 미제국주의의 부종, 예속의 한반도 수탈 구조를 실감하고 인간의 뜨거운 피와 순수한 생존 원동력인 열정으로 민족 통일을 조국산하에 뿌리 박기 위해 88년 10월10일 부산대 재료관 옥상에서 "이제 조국 산하에 실하디 실하게 뿌리 박은 진달래가 되고파 하며..."라고 절규한 후 투신하였다.

◎ 추모글

<글>

승리의 계절

영진은 <부대문학>을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문학과 운동의 문제를 풀어낸 것 같았다. 5월 대동제 기간에 우리는 전남대의 용봉문학회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혁혁한 투쟁 실적을 자랑하던 용봉문학회와 마련한 자리에서 우리는 대중적 문예조직으로 갖는 <부대문학>의 위상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영진은 용봉문학회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돌아오는 길에 제시하기도 하면서 <부대문학의 조직강화>에 남다른 의욕을 보였다.

5월이 지나간 뒤 우리에게는 조국통일의 6월이 다가왔다. <부대문학>은 조국통일에 조직적으로 임하기 위해 '통일시 공동창작'을 중심사업으로 결정한다. 그 때 부산대는 조국통일의 절박성과 사회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하여 행한 전 직선 간부들의 단식투쟁과 그에 호응하는 뜻있는 학우들의 동조단식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었다.

영진은 해방 정국에 대한 형상화를 통해 학우들에게 분단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것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를 밝혀내자고 역설했다. 6.10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을 마치고 난 뒤 <부대문학>은 그 동안의 사업들을 평가하면서 조직강화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다. 그 하나의 방편으로 기관지 발간이 제안되었으며 영진이가 주축이 되었던 <부대문학> 기획팀이 이 사업을 떠맡기로 했다.

영진과 기획팀은 기관지 창간호의 특징으로 한국사회와 문예운동의 역할에 대한 공동논문을 준비하기로 하고 작업에 착수했다. 그 때 구도서관 뒤쪽에서 자취를 하고 있던 영진은 푹푹찌는 한 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수많은 시들을 써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그는 항상 피곤에 절은 얼굴이지만 유난히 눈빛만은 생기가 들었던 게 인상적이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께 걱정을 끼칠까봐 쌀이 떨어져 밥을 굶고 있음에도 일언반구 내색도 하지 않은 체 장난스럽게 친구들에게 밥 사달라고 조르는 그의 모습

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깊은 상처자국과 같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의 그런 속내를 깊이 짐작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다.

창고를 개량해서 만든 그의 자취방에는 장마가 들자 비가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풀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없었다. 집이 썩어 넘어서든 몸에 곰팡이가 피든 아침 나절 내가 찾아갈 적마다 피곤에 지쳐 곤히 잠든 그의 머리맡에는 밤새 꼬박 적어 갔을 시와 산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기가 일쑤였다. 그의 이처럼 사업을 위해서라면 자기 신상에 관한 문제는 그리 깊이 생각하지 않는 성격이었다.

4월 개나리가 한창 교정을 물들이던 때 있었던 전방입소 거부투쟁에서 영진은 44명의 퇴소자와 함께 학교로 돌아왔다. 곧바로 총장실을 점거한 그들은 애초에 약속했던 8개월의 불이행에 대한 항의로 농성을 시작한다. 영진은 그 때 선전을 맡았고 바쁘게 일정을 이끌어가고 있었다. 거의 잠을 못자고 지쳐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된 단식 투쟁에까지 참가한다. 다음의 투쟁을 위하여 단식에는 참가를 하지 말라고 우리들은 권고했지만 영진은 막무가내였다. 어떻게 후배들이 싸우는데 팔짱끼고 나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렇듯 그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일관된 열정으로 투쟁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져갔다.

〈양영진을 생각한다〉 중에서

◎ 유고글

〈유 서〉

사랑하는 내 사람들에게

내 나이 올해 스물 둘, 참으로 팔팔한 나이지요.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랑이며 사는 것인지, 건강하게 사는 것인지 알 만한 나이지요. 양키 미제국주의에 의해 분단된 땅, 고통받고 있는 땅, 창백한 식민지 조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살려고 했지요.

투쟁하며 살려 했지요.

그러다가 투쟁 속에서 죽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우리 인간됨을 파괴하는 것들과 맞서서 가장 처절히 투쟁하는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마른 비집꽃이 허영

게 핀 가난의 땅에 고통과 눈물로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저는 한 때, 부와 명성의 유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의 고통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지 알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구체적 민중들에게 아픔을 안겨주는 모순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삶, 이 땅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삶, 자주·민주·통일을 내어 오는 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학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한 때는 가난에서 비롯된 도피와 자족을 저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마저 현재제를 유지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일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문학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이 땅 변혁운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저에게 가장 알맞은 무기이며,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상에 입각한 조직적 문학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동지들과 고민하고, 8·15 남북청년학생회담 성사를 위해 지역선전대 활동에 바쁘던 중 8월9일 다음 날까지 입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조국순례대행진에 참가신청서를 내 놓고 있었습니다.

군부독제가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아니, 상반되게 던져 온 한장의 소집통지서, 기껏 폭력적 지배방법, 법적 표현에 불과한 소집통지서와 이 조국산천의 검은 얼굴, 돌맹이 하나하나에도 서린 통일의지를 안고 달려갈 조국순례대행진 참가신청서 사이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감동의 차이를 다만 감내하며 저는 그저 폭력통지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동포를 상대로 한 쥘러, 베어, 때려, 돌려쳐를 배우고 사격수를 배우고 난 뒤, 저는 해운대의 어느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스비난. 제게 떠맡겨진 임무는 방위병으로 M16소총을 들고 탄약창고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M16을 들고 밤을 세워 지키는 적은 오로지 현 노태우 파쇼집단의 지배체제였으며 나아가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로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수탈구조였습니다. 저의 총구는 언제나 북한동포, 그리고 남한 민

중 구체적으로는 어머니, 형제, 동지들에게 겨냥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아 반역의 총구, 패륜의 총구에 의해 저는 가슴에 무수한 총알을 맞으면서 어머니의 편안한 미소같은 아침햇살이 퍼져오길 발길 뜬우어 기다렸습니다. 매일 새벽은 찾아오지만 허한 얼굴로 쓰러지는 그리움만 M16소총의 섬뜩한 느낌에 몸을 떨어야만 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자주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이라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길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그 인내심의 보질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일방적 복종심의 습성을 배양하여 기계적인 현실체념주의의 형으로 만들고, 인간이 인간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현 노태우 파쇼집단에 가장 잘 순응하는 인간형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주어진 입장에서의 주체적인 사고와 창조적인 노력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깨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역사를 진보시켜 왔고, 인간성의 고양을 담보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남한 사회내에서 민중의 자주성이 유린당하지 않는 곳이 없겠지만 군대는 가장 구조적으로 인간의 자주성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주성이 그 생명인 바 자주성이 없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현 노

태우 파쇼집단과 미제국주의 놈들은 가장 뜨거운 피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수많은 젊은이들을 합법적(?)으로 대량 살인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땅 민중의 고통과 신음소리로써만 그 놈들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투쟁으로 신음소리가 피터지는 구호로 전화한다면 그 놈들은 이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산천 골짜기마다 붉게 피워 피울음 우는 진달래 만큼이나 많은 양의 피가 이땅에 뿌려졌고 이름도 없이 하얗게 그리움으로 피고진 꽃땀들이 지천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조국 산하에 실하디 실하게 뿌리박은 진달래가 되려고 합니다.

울컥 울컥 솟는 눈물 해방의 땅에 흘리려 합니다.

인간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통일벽 가로막는 군대조직 해체하라!!

조국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물러가라!!

미국놈들 몰아내고 사람사는 세상 건설하자!!

미국놈들 몰아내고 해방의 꽃잔치 벌여보자!!

통일염원 44년 10월9일

양영진 드림



1967년 8월 충남 아산군 출생
 1986년 천안북일 고등학교 졸업
 1986년 3월 서울 교육대학 입학
 1986년 3월 윤리과 학생회 학술부장 역임
 1988년 10월 동아리 연합회 총무부장 역임
 1989년 4월 7일 분신
 1989년 4월 8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남태현 동지는 기간의 교육이 제국주의자들과 독재의 무리에게 빼앗긴 이래로 학원은 민족자주 교육의 산실이 아닌 식민지 노예를 길러내는 곳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동지는 사상과 학문연구에 대한 자유는 철저히 말살되어 왔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권리, 학생이 낸 등록금을 학생이 편성할 권리를 갖기 위한 의로운 투쟁도 학교당국과 어용교수들의 탄압으로 좌절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89년 4월 7일 '기성회비 사용내용 공개, 예·결산시 학생대표 참여' 문제로 학원민주화 투쟁을 전개하던 당시 서울 교대에서 삭발과 단식, 수업거부 투쟁 등이 부분적인 승리로 그치고 정리되려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남태현 동지는 오후 7시경 강의동 3층에서 반미출정가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른 후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교대인이여 깨어나라!"는 혈서로 쓴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동지의 죽음은 조국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미제와 군부독재, 이들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 식민지 노예교육의 침병인 학교당국과 어용, 무능교수들, 그리고 굴종과 안일의 늪에 빠져있는 교대인들의 가슴에 비수로서 꽂혔던 것이다.

◎ 동지를 생각하며

겨울은 그저 겨울 일뿐. 7천만 민중의 뜨거운 숨결은 차가운 대지를 녹이고 있지 않은가? 어깨춤 덩실대

며 신명을 돋구는 저들 모습속에서 기어코 맞이할 수 밖에 없다는 새날의 충만한 의욕은 나의 움츠러진 어깨에 다시금 힘을 불어 넣어 준다. 오늘이 아니라도 좋다.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괜찮다. 네가 있고 내가 있는 우리들의 훗날을 위해 그저 묵묵히 함께 할 수만 있다면...

◎ 추모글

<시>

눈물대신 불꽃을

지금은 그대의 죽음앞에 엎드려
 눈물을 뿌릴 때가 아니다
 아직도 이 땅에선
 탐욕의 부리 세운 칩칙한 어둠이
 등 쳐먹고 간 빼먹으며
 피의 제단 위에 또 다시 피를 부르는 데
 ... 중 략 ...

그대 온 몸 던져 사르려던
 식민의 너울, 독재의 장막
 여전히 견히지 않은 땅에서
 백줄의 미사여구 촌철살인의 말인들
 그대 죽음에 값할 수 있으랴
 육신의 재로 남긴 그대의 불씨

해방의 함성으로 꽃 피우는 날 까지
 깨어나라, 깨어나라던 그대의 목소리
 그대의 숨결로 눈물대신 투쟁의 불꽃을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 지펴야할 뿐
 님이여
 지금은 결코 그대 앞에 엎드려
 눈물을 뿌릴 때가 아니다
 눈물을 뿌릴 때가 아니다

정세기

◎ 유고글

<유 서>

이땅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최소 생활유지를 위한 몸짓마저 모두 빼앗긴 채 죽어가고 있다.

"이 한반도에는 외국자본에 의해 더 이상 자립경제가 발 붙일 곳이 없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민중의 아픔, 나의 본질적인 억압을 멀리하려고, 무관심한 나의 안일이 역겹다. 점점 민중들 그 의미도 잘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하길 꺼려하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아서 가장 못난길을 택하고 만다. 갈 수 밖에 없는 나약함에 서글퍼 하면서.

<일 기>

저들의 강압과 강요에 내가 겪어야 하는 아픔은 어디에서 변상받아야 하는가? 외치고 싶다. 대들고 싶다. 왜 나의 아픔은 생각지도 않느냐고 이 일만큼은, 철저하게 이행하고 싶다.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면 극한적 싸움까지도 감수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쟁취하겠다. 나 자신의 완성을 위하여.

권인숙

그 이름 감히 입에 담기도 송구스러운 일이다. 이 민족의 딸로서 독재와 살인 정권에 대항하여 누구보다 앞장서서 싸우는 이름 권인숙, 진실로 사랑하며 자신을 노동자라 하며 스스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현실속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는 강한 역사의 딸이다.

말로만 떠벌리는 위선 가득한 가식의 몸짓이 아닌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이, 그 진실된 몸짓이 오늘의 무력한 나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알량한 대학생 뻔지 하나에 스스로를 감추며 그 속에서 일체의 행동을

거부하고 단지 신문기사에 화풀이하는 녀석이, 오늘 진정한 대학생은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다시금 커다란 울림을 얻는다.

진정한 행동속에서 다시금 진실이 쏟아져 나옴을 알기에 이제 자그마한 짓을 하려 한다.

비록 이해타산의 그물 속에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자책 속에서 헤어날 수는 없으나 3일 동안 좀 더 많은 것을 배운다는 자세에서 단식하려 한다.

이런 말이 있었다. 「인간의 가슴이 너무도 좁아 은을 채우기 위해서는 돌을 버려야 하며 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을 버려야 하고, 더 귀한 것을 가슴에 채우려면 금을 버려야 한다.」는 말. 3일동안 지금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으며 더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수 있으면 한다.

<편 지>

나 역시 민주화에 대한 성급한 정의내림에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 나의 삶은 너보다 훨씬 아래이며 지금까지 나의 삶의 과정들은 이 땅에 민주화의 절실함을 느끼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러나 진정 타도되어야 할 비역사적인 군부독재 앞에서, 그들에 의해 자행되는 민주주의 아픔에서 나는 책 속의 수 많은 지식보다 훨씬 생생한 민주화의 포효를 듣는다.

진정한 민주화의 바람이 자신에게 오는 모순으로 인하여 그 근원마저 부인한다면 이제 민주라는 말은 그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래, 너 아니 나 하나가 그를 외면한다고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 개인이기에 앞서 이 땅의 민중임을 자각해야 한다. 다시는 반동적인 안일의 늪에 우리를 빠뜨려서는 안된다. 이 순간의 갈등은 극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합당한 자리에서 연대투쟁의 대열에 나서야 한다. 이는 역사의 부름이요, 거역하지 못할 사명인 것이다.

수 많은 선배 열사와 광주는 우리에게 민주를, 그리고 무참히 짓밟히는 이 땅의 민중은 우리에게 민중의 해방을 외쳐댄다하여 들리지 않을 그런 소리는 결코 아니다. 이제 독재의 하수인이 민중의 자유에 칼을 겨누고, 독점자본의 하수인으로 이 땅 민중의 피를 요구한다면..... 깨어있어야 함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철규 (당시 24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65년 5월 6일 전남 장성군 삼서면 출생
- 1982년 조선대 공대 전자공학과 입학
- 1985년 11월 '반외세 반독재 투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1987년 7월 가석방 후 반봉건 학원민주화 투쟁 전개
- 1989년 4월 [민주조선]발간과 관련, 수배
- 1989년 5월 3일 행방불명
- 1989년 5월 10일 변사체로 발견됨

◎ 동지의 삶과 죽음

독재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탄압의 사슬을 조여오는 재단 이사장 박철웅 독재세력에 맞서 조선대학교 학생들은 피어린 싸움을 전개해 나가고 이어 학원자주화 투쟁의 역사에 길이 남을 130여일의 장기농성투쟁에 돌입하게 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동지의 활동은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했고, 세심한 일들까지 챙겨가면서도 나이 어린 후배들을 보살피는 일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이러한 투쟁을 전개하는 동안 박철웅 사학독재세력은 쫓기는 쥐처럼 극에 달한 위기의식을 느낌으로써 대권을 잡은 노태우 정권과 결탁하여 88년 1월8일 새벽 4시에 기습적으로 수천명의 정.사북경찰을 투입시켜 농성장을 파괴하는 폭거에까지 이르게 된다.

최후탄을 난사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난입한 경찰에 맞서 조선대 학생들은 투신 등 온몸으로 항거하는 영웅적 투쟁을 전개한다.

동지는 곳곳에서 불길이 일고 연기가 치솟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농성장에 끝까지 남아 그와 동지들의 땀이 배인 농성장을 지킨다.

동지가 농성장을 끝까지 지켰던 것은 피로써 사수한 투쟁은 꼭 승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음까지 결사했던 이철규 동지는 고가사다리를 타고 농성장에 들어온 소방대원에 의해 구출된다. 그것도 경찰에 잡히지 않고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소방대원 아저씨가 벗어준 소방복을

입고서...

박철웅의 아성은 무너지고 조선대는 이돈명 총장을 영입하여 민족대학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동지는 민족자주의식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선전매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민주조선교지편집위원회를 결성한다. 부위원장으로 6개월동안 3권의 책을 펴내는 정력적인 활동을 펴던 이철규동지는 88년 말부터 실질적인 편집위원장직을 맡아 [민주조선] 창간호를 준비하게 된다.

"이땅 민중들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미국에 있다"고 늘 말하던 동지는 [민주조선]창간호를 통하여 한반도 민중의 민족정신과 물적기반을 침탈하여온 미제국주의의 흉악한 실체를 '미제침략 백년사'를 통해 폭로해 내었다.

또한 통일이 되어야만 될 또하나의 조국 북한을 바로 알기위해 '북한의 혁명과 건설'을 게재함으로써 민족자주의식을 올바르게 세워내고 반공, 반북 이데올로기 조작을 통하여 적이 되어 버린 북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제기하려 하였다.

그러나 노정권은 수세에 몰린 정국의 주도권을 다시 잡고 광주의 5월열기를 막아보고자, 또한 민족대학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조선대학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치밀한 공작을 세우게 되고 그 첫 번째 표적물인 민주조선 창간호에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표현물 제작이란 누명을 씌워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반

역적 폭거를 감행하기에 이른다.

그 당시 민주조선 편집위원장이었던 동지를 비롯해 조선대 학우들은 반민주 6공화국이 민주조선을 탄압하는 배경에 반공반북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모종의 커다란 조직사건을 조작, 조선대를 와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전면적인 결사투쟁에 나선다.

민주조선 편집위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의 미명 아래 자행된 수배조치는 편집위원들에게 일상적 제약을 주게 되지만 동지는 그 와중에서도 후배들에게 정의로 온 투쟁은 반드시 승리하고 만다는 자신감을 일깨웠다. 수배당시의 후배들은 동지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한다.

"형은 수배와중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북경찰의 끊임없는 미행을 동반한 삼엄한 감시속에서도 후배의 생일을 잊지않고 축하해 주는 등 자신의 안전보다는 후배들의 힘든 생활을 더 염려했습니다."

이철규 동지는 압제와 폭압을 부수는 발파공으로 그 누구에게나 따뜻한 친구로 생활하는 한 인간으로서의 성실한 삶을 살았다.

이렇듯 동지의 하루하루는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며, 동지의 삶은 휴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반민주정권 6공화국의 공안정국이 휘두르는 시퍼런 압제의 칼날에 동지는 참혹한 고문을 당하며 죽어야만 했다.

온 몸을 바쳐, 싸우고 있는 동지들을 팔지 않고 민족조선대학의 와해음모에 온몸으로 항거하여 의롭게 죽어 간 것이다. 또한 동지는 우리 민족,민주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한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민족의 제단에 목숨을 바쳤던 것이다. 참혹한 모습으로 동지가 우리곁을 떠나 갔지만 이철규동지는 죽어서도 투쟁으로 부활하고 우리 가슴에 살아 꿈틀거리는 구국의 의지로 되살아 영원히 불퇴전의 구국전사로 남을 것이다.

◎ 사건경위

수배중 고문의 흔적 역력한 참혹한 변사체로 89년 5월 10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시 북구 청옥동 제4수원지에서 조선대 [민주조선] 편집위원회 위원장 이철규(전자공학 4년)동지가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이

철규동지는 교지 [민주조선]에 '북한의 혁명과 건설'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여 국보법 위반혐의로 4월 18일 광주.전남지역 공안합수부에 의해 지명수배 중이었다.

이철규동지의 사체는 수원지 관리인인 최왕균씨(52세)에 의해 수원지 상류에서 발견, 당시 하늘을 향한 채 떠 있었다. 최씨에 의하면 "5월 10일 오전 1시 30분 경 집에서 기르던 개가 짖어 물가로 내려가보니 사체가 있어 청옥동 파출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사체는 입가에 피를 흘린 자국과 온몸에 멍이 많이 들어 있어 구타흔적이 역력했으며 얼굴은 검게 변해 있었다. 또한 오른쪽 눈은 합몰상태에 있었고 왼쪽눈은 튀어나와 있어 형상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광주지검은 김각영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반을 만들어 사망 전 이철규 동지를 검문하였던 경찰들을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체부검을 의뢰하는 등 사인규명에 착수하였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5월 14일 이철규동지의 사인을 익사로 단정하여 발표하였고, 검찰은 이와같은 사체부검결과를 토대로 이철규동지가 실족익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사체의 상태 및 죽음의 정황에 비추어 플랑크톤 검출만으로 실족익사라는 검찰의 판단은 대단히 설득력이 없었고,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재판이 아닌가하는 국민적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전국의 학생 및 재야단체 인사들을 중심으로 '애국학생 고 이철규고문살인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사건의 진상 규명과 노태우정권의 퇴진운동을 떠나가게 되었다.

한편 미국무부는 이철규동지의 사체가 발견된지 이틀 후인 89년 5월 12일 이철규동지의 변사사건에 대해 "개탄스럽고 잔학스러운 사건이며 살인범을 체포해 엄벌하기를 기대한다"는 극히 이례적인 논평을 발표함으로써 미국이 변사사건에 모종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혹을 던져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철규동지 사건에 관한 범국민적 관심과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여 89년 6월 1일부터 현지에 내려가 활동을 벌였으나 의원들의 전문 지식의 한계와 사인규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부검 요청이 검찰측에 의하여 거부됨으로써 많은 의문점만 지적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고서조차 발표

하지 않고 6월 27일 활동을 종결하였다.

한편 검찰의 이와 같은 재부검 거부방침에 따라 유족 및 대책위는 칼쉬너 박사를 초청하여 동인이 6월 29일 내한하였으나 검찰이 자체 부검마저 금지 시킴으로써 그 계획이 무산되었고, 칼쉬너 박사의 1차부검 당시의 슬라이드 제출요청마저 검찰에 의해 거부됨에 따라 검찰이 사인규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인을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결국 이철규동지의 사인은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이철규동지의 사체는 냉동상태로 있다가 6개월후인 89년 11월 4일 망월동 묘역에 안장되었다.

◎ 의문점

1. 사고사, 자살 주장에 대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문점

1) 도주 후 동일지점에 복귀

이철규동지가 산으로 도주했다면 도주 후 다시 그 지점으로 와서 어둠속에서 철조망을 넘어 점퍼가 발견된 지점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정신이상자가 아닌 이상 저지룰 수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취수탑 경비초소에는 청원경찰이 근무했고 도주 후 경찰의 수사력 집중, 매복가능성 등 신변에 위험을 초래할 요소가 많은 지점으로 되돌아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도주하는 자라면 신변노출의 위험이 없는 야산을 통해 도주하는 것이 상례이지 위험지역으로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 도망자의 도피로는 사전 약속장소 방향이나 위험이 덜한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2) 수원지 도강(渡江)

① 점퍼가 발견된 지점에서 만약 도강하려 했다면 현지 조건상 최악의 지점을 선택한 것이다. 폭이 200미터가 넘고 수심이 7미터가 넘는 지점인데 그 지점을 통해 광주로 진입하고자 했다면 헤엄치는 물소리가 경찰 또는 경비 청원경찰에게 탄로날 것이 자명한데 제아무리 수영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점을 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② 설사 도강하려 했다 하더라도 도주자가 옷을 입

고 신발, 더욱이 구두를 신고 도강할 사람이 있겠는가, 더욱이 도강후 옷과 신발이 젖어 의심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옷과 신발을 물에 젖지 않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옷도 벗지 않고 구두를 신고 도강한다면 도주자의 신분 노출을 자초하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3) 실족해서 익사할 경우

실족을 했다면 당연히 점퍼를 입고 있거나 실족사한 부근에서 점퍼가 발견되어야 한다. 이철규동지의 경우 점퍼를 벗어놓고 전화번호를 기재한 메모용지를 27 조각으로 찢어 놓고 실족했다는 것은 행위의 전후가 모순되는 상식 밖의 일이다. 따라서 옷을 벗어 놓고 실족했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4) 자살을 가정한 경우

평소 의지나 신념이 강한 이철규동지가 도주한 후 자살을 감행할 이유가 없으며 유서 등 자살을 기도한 근거가 없는데, 실족 자살로 익사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경찰 발표 및 수사상의 의문점

1) 만약 경찰의 발표대로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사건현장은 물론 인근지역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는 물론 정밀한 수색을 전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후 조치가 지극히 미흡했다. 경찰측은 국회진상조사시 평소 20:00-02:00까지 근무시간임을 밝히고도 사건당일만은 23:30에 일찍 병력을 철수시킨 것은 수사관례상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면 청옥동 파출소 소속 정종석 순경(41), 전기홍 순경(38) 등 2명의 경찰이 더 투입되었는데도, 호반 산장에서 이군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고 무등산장 쪽에서 사건지점을 23:30경 통과한 박효양(23,조선대 줄)에 대해서는 일체의 검문검색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검문검색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 즉 도주자를 놓친 것이 아니고 체포해서 상황이 끝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2) 도주자를 놓치고 난 후 홍성하씨(31)와 이행민씨(46) 등 2명의 청원경찰이 수색경찰과 합류했을 때 이철규동지를 검문검색한 지점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즉 이철규동지가 산으로 도주한 지점 바로 아래 수원지에서 청풍교 아래에서 들리는 "어푸어푸" 소리

를 1명은 5-6회, 다른 청경은 2-3회 들었다고 진술하여 경찰과 수색을 재개했는데 자동차 전조등 또는 손전등으로 비췌보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만약 그러한 소리를 분명 들었다면 20여분 전에 도주자가 발생한 사고현장에서 부근 일대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도주자가 빠졌을 가능성과 자연스럽게 결부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탐색작업을 했어야 옳지 않은가.

더욱이 허우적거리는 소리와 비명소리가 난 지점과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35)와 김현빈씨(36)는 조용한 수원지에서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청원경찰 2명에게 얘기했고, 잠시 후 정북경찰 1명(정종석순경)과 형사1명이 취수탑 초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해 신분증 확인과정에서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했다면 청원경찰이 들은 소리는 청원경찰만이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라는 말인가.

3) 제 4수원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평소 20:00를 전후해 퇴근하는 것이 상례라고 인근 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53사건 당일밤 10시가 넘도록 근무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청원경찰이 무슨 이유로 청옥파출소에 어떤 내용을 무슨 방법으로 연락하여 2명의 경찰이 사건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의문에 싸여 있다.

4) 도주자를 놓쳤다면 당연히 상황을 보고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일이 지난 5일에야 북부서 형사제1반 팀장인 김자술경위가 북부서 수사과장에게 구두로 보고한 점은 경찰의 수사 지휘체계상 상식밖의 일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당시의 근무일지, 상황일지 등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5) 경찰측에서는 청풍교 부근 수원지 건너편에서 낚시하던 김오빈씨와 김현빈씨에 대해 사건발행 직후부터 12일까지는 청원경찰이 감시초소로 데려와서 조사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3일부터는, 사건장소에 낚시꾼이 있었으며, 북부서 김자술 경위(51), 김남태 경장(30), 박재환 순경(37) 등 5명의 경찰관 외에 2명의 경찰관이 사건현장에 있었으며, 이들 낚시꾼에 대한 신원확인온 청옥동 파출소에서 나온 정종석 순경(41)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보도되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6) 경찰은 당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5명이었다고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회진상조사단에겐 증언했으나 출동차량인 24인승 미니버스를 의경이 운전한 사실이 밝혀졌다. 5명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소한 문제까지 자꾸 반복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무엇인가 축소하거나 숨기려 든다는 인상을 받고 불신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시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7) 검문경찰들은 사건 직후 검문과정에서 놓치고 추격하여 되돌아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처음에는 20분을 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추후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시 1시간 가까이 박재환 순경이 잠복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문경찰들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시간 여 동안 잠복한 박순경은 물론 관련 경찰들의 행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8) 검문사실의 첫 제보자인 택시기사 이재민씨(35)는 11일 11:30경 전대 의대 영안실 관리실의 인터뷰 장소에서 이철규동지가 도주할 당시 택시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철규동지가 도망가자 운전기사 이씨가 맨앞에서 광주 4과 4684호 영업용 택시를 몰고 쫓아갔다고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9) 추적경찰 2명이 20여분 후 되돌아와 운전사 이씨에게 "틀렸다" "놓쳐버렸다. 택시 강도가 많으니 밤늦게 이런 곳으로 운행하지 말라"며 순순히 이씨를 돌려보냈다고 한다. 검문 도중, 신원확인 중 피검문자가 도주해서 놓쳤다면 경찰은 당연히 승차지점, 목적지, 승차시간, 주행중 대화내용 등에 대해 추궁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 이것은 경찰이 이씨에게 더 이상 물어도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또한 의문을 더해주고 있다.

3. 경찰의 수사태도의 의문점

1) 5월 10일 제4수원지 관리인 최왕균씨(52)의 사체 발견 보고 접수후 검문에 임한 경찰은 당연히 이철규동지의 도주사실과 변사체와의 관련사실을 지휘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사 이재민씨가 검문중 청년 1명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제보하고 이 사실이 보고되고

나서야 비로소 검문했던 상황을 밝혔다는 것은 이철규 동지를 마지막 목격하고 추격했던 경찰에 대한 의심을 더욱 깊게 해주는 중요한 사항이다.

2) 사체가 발견되었다면 그 일대를 수색하고 유류품 또는 흔적을 찾기 위해 집중적인 수색작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들이 지난 12일에야 점퍼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수사관행상 상식밖의 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3) 5월 10일 사체 인양 직후 사체에서 현금 3,000원이 발견되었다고 당시 이철규동지 행선지 등 정황으로 보아 3천원 보다 많은 금액을 소지했을 것이라는 주장들이 제기된 후 14일에야 사체에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당시 북구청 보건소 지방의사 김세현씨(38)가 변사자의 모든 호주머니를 뒤져 주민등록증, 현금, 도장 등을 찾아냈는데 현금 20만원이면 주민등록증 보다 두꺼운 부피임에도 발견치 못했다는 사실은 혹시 돈봉투가 다른 곳에서 보관되었다가 사체에서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위장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점퍼, 소지금액은 물론 안경, 수첩, 담배, 가스라이터 등에 대해 최후 목격자나 제보자의 진술과 보도가 먼저 제시되고 난후 수사결과가 곧바로 뒤따라 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시민들은 수사본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더욱 의혹에 찬 시선을 보내고 있다.

4. 부검 소견 및 유류품 발견 발표의 의문점

1) 위 내용물: 5월 11일 전남대 의대 영안실에서 있었던 이철규동지의 부검당시 위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 2-3시간 전에 이철규동지의 식사 사실을 반증했다. 사건 당일 이철규동지의 행적을 살펴볼 때 17:30경 호남대앞 음식점에서 후배 정우태군(호남대 사학과 3년)과 짜장면을 먹었고 동일 20:40분경 산수동 오거리 소재 '길목' 카페에서 후배인 이회복양, 이경미양과 만

나 음료수만을 마신것으로 관련 목격자들은 증언하고 있다. 실종된 22:20이후 점심식사는 6시간 이상 경과해 위 안에 남아있을 수 없었고 더욱이 오후 늦게 식사를 하고 후배 생일축하 식사가 약속된 까닭에 17시 30분 짜장면 식사후 다른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수사 당국에서 추정하는 대로 익사했다고 할 지라도 위 안에서 발견된 밥알은 사망일자와 사망시간은 물론 실종후 이철규동지의 행적에 결정적 단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공개 가검물검사 중 위 내용물을 조사하면서 약물에 의한 중독여부를 가리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사망시기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렵다.

2) 점퍼: 5월 3일 길목 카페에서 만나 동일 22:00경 헤어진 이철규동지의 후배 이회복, 이경미양에 의하면 12일 경찰에 의해 발견된 베이지색 사파리 점퍼는 사건 당일 이철규동지가 입고 있던 점퍼가 아니고 얇은 천으로 된 축색이었다고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다. 만약 이철규동지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이 점퍼가 12일까지 10일 2.8mm 11일 14.7mm 12일 52mm의 강우량(광주 기상대 보고)을 보인 일기에서 가장 습기에 약한 담배나 성냥이 비에 젖지 않고 그대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건 발생 3일째 되는날 발견됨으로써 사체 발견 인접지역을 수색하는데 그토록 소홀히 할 수 있느냐는 점 또한 그럴 수도 있다는 개연성 정도로 보아 넘기기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술한 의혹과 의문을 남긴 채 89년 11월 4일 이철규동지의 장례식이 치루어짐으로써 이철규동지의 변사사건은 관련자의 양심선언 등 극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 영구히 미궁 속으로 빠져 버릴 공산이 크게 되었다.

이 내 창 (당시 27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62년	서울 출생 청구국민학교 졸업 대경중학교 졸업 중동고등학교 졸업
1986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조소학과 입학
1987년	판화패 「새김」창립, 회장 역임
1988년	조소학과 학생회장 역임. 학과내에 「민족미술연구회」창설 「서울지역 미술대학 연합 건설준비위원회」주최 "청년미술대학 한마당" 개최
1989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
1989년 8월 15일	거문도 소재 덕촌리 유립해수욕장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유인타살, 사건의 고의적 은폐

- 새로운 형태의 의문사 -

중앙대 안성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내창 동지는 열정을 갖고 학생회장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하여 학우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던 운동가였다. 동지는 또한 미술생도로서 민족민주미술 운동에 헌신하기도 했다.

그런 이내창 동지가 2학기 사업점점으로 한창 바쁜 때인 8월15일 생전 가보지도 않은 낙도 거문도 앞바다에서 외상에 의한 피하출혈 흔적이 7군데나 있는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는 15일, 전민련 주최의 '민족해방절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고 16일에는 총장과 면담 약속을 잡아놓고 있었는데 학우들과의 약속도 단 5분을 넘기지않고 확실히 지키던 그가 갑자기 중요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로 그 전날 거문도로 간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나중에 안기부 인첸본실(세청 인하공사) 소속 여직원이라고 밝혀진 도연주와 그 남자친구 백승희 등 2인과 동행하여 편도로 밤새워야 갈수 있는 거리인 거문도까지 갔다가 변을 당했다는 일은 다른 의문사의 경우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이내창 동지는 8월14일 오전에 학교로 찾아온 도현주, 백승희 2인과 이날 오후 4시45분경 안성을 출발해서 다음날 18시경 여수발 거문리행 쾌리호에 승선한 일

이 확인되기까지의 행적이 미궁에 빠져 있다. 그리고 12시50분경에 거문리에 도착하고 13시-13시30분경 방파제에 앉은 이내창 동지가 목격되며 15시경 거문리 소재 '삼호다방'에서 도, 백씨와 함께 음료수를 마신 일이 다방 종업원 최씨에게 목격되었고, 그런 후 15시30분경 거문리와 덕촌리를 왕래하는 나룻배에도, 백씨와 함께 타고 덕촌리로 건너왔음이 사공에 의해 목격되었다. 그런후 이 동지는 약 3시간후인 1시30분경 상의가 완전히 벗겨져 물에 엎드려 죽어있는 상태로 발견되기에 이른다.

이후 19일 부검이 실시되고 부검결과를 놓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익사설, 경찰과 검찰측은 단순익사로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지었고, 대책위와 학생, 교수들은 자살이나 실족은 절대 아니며 타살, 익사를 당했다고 주장, 수사과정의 전면공개와 검찰측의 은폐조작기도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그후 사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일체 묵묵부답으로 대응을 하다가 전대협장으로 이내창 동지의 장례식이 있던 10월6일 <한겨레신문>에 "이내창 씨 최후동행자 안기부직원" 제하 위 기사가 실리고 국회에서도 야당의원들에 의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기에 이르자 치안본부는 전면재수사, 공개수사를 천명하여 사건이 진척되는 듯이 보였으나 경찰은 이를 어기고 수사를 재개하는 시늉만 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 관심이 수그러들자 <한겨레신문

문)을 도씨 명의로 고발하기에 이르러 이 사건은 법정
에 서게 되었다.

이내창 동지의 의문사 사건은 이철규 동지까지의
"의문사"가 개연성이 많았던 것에 비해서 목적의식적
으로 죽음의 장소에까지 유인, 타살하고 (정황이나 목
격자의 진술, 상처 등으로 보아 자살일 수는 없다) 그
살인행위를 국가권력이 의식적으로 은폐, 조작해준 뚜
렷한 사건으로 앞으로의 권력에 의한 의문사의 발생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즉, 이제는 수사과정이나 연행과정에서 전적으
로 죽일 목적이 없이 고문 등을 가하는 과정에서 죽이
게 되고 그를 사후에 은폐, 축소하는 것이 아닌 처음부
터 살해의 목적을 갖고 대상을 고르고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사후대책까지도 마련한 속에서 왜곡, 축소시키
는 유형의 정치적 목적의 의도적 타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첫 번째 경우가 이내창 동지의 의문사가 아닌
가하는 점이다.

◎ 의문점

미친한 부분이 많지만 <한겨레신문> 89년 10월 8일
자 신문을 보는 것으로 대신한다.

<이내창 동지 죽음 꼬리무는 의혹>

• 동행자들 알리바이

경찰은 지난 8월15일 이 동지가 숨진 채로 발견된
뒤 지금까지 직접 면담, 목격자 탐문, 출장수사, 우편조
사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모두 7백여명에 이르는 사
람들을 상대로 수사활동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중앙대
'공동대책위'도 4차례에 걸쳐 연인원 2백여명의 '조사
단'을 현지에 보내 진상규명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내창 동지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주요한
인물로 떠오른 사람은 안기부 직원으로 밝혀진 도아무
개(23.여)씨를 비롯해 도씨의 동행자 백아무개(22), 서
아무개(22), 또다른 백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의 친구인
이아무개(20.여)씨 등 6명이다.

• 배 탄 시간 진술과 틀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씨와 백씨는 이 동지가 숨지기
2시간 전인 8월15일 오후3시부터 약 40분간 이내창 동

지와 '같이 있었다'는 증인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이
같은 증인들과 함께 이들의 진술도 서로 어긋나거나
사실과 다를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많아 의문을 뒷
받침하고 있다. 도씨와 백씨는 15일 낮 12시 30분께 거
문리에 도착한 뒤 곧바로 동도에 있는 친구 박아무개
씨 집에 전화를 걸어 "마중 나오라"고 한 뒤 20분 뒤인
12시50분께 전화를 받고 마중 나온 박아무개씨와 서아무
개씨를 거문리에서 만났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와
함께 4명이 거문리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인근
영국군 묘지로 놀러갔다가 오후 5시께 동도의 친구집
으로 함께 건너갔다고 사건 당시의 알리바이를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도씨가 오후 3시부터 20
분 가량 이내창씨와 함께 있었다"는 거문리 삼호다방
여종업원 최희(24)씨의 증언과 거문리-서도간을 운행하
는 덕성호 선장 이현우(42)씨의 "이내창씨와 도백씨가
3시 30분께 함께 배를 타고 서도로 갔다"는 증언으로
결정적으로 깨져나간다. 또한 도백씨의 진술을 인정하
다 하더라도 당시 백씨의 친구로 마중나간 박씨와 서
씨가 거문리에 도착한 시각도 도씨 등의 진술과 달리 1
시간 가량 늦은 오후 1시50분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거문리 일대를 운항하는 거문호는 당시
오후 1시에 거문리를 출발해 서도의 선착장 2곳과 서도
인근의 외편섬 2-3군데를 돌아 오후 1시35분께 동도에
도착해 10여분 뒤인 1시 50분께 거문리로 되돌아오는
일방 코스만으로 운항했고 박.서씨는 동도에서 이 배를
타고 와야 했기 때문이다.

◎ 동지의 삶과 죽음

몇마디 말로 이내창 동지가 살아 온 모든 것에 대
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지가 생
전에 가졌던 생각과 생활을 솔직하게 적는 것이 동지
를 가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내
창 동지는 어느누구와 다를바 없는 유소년 시절을 보
낸 후, 군복무를 마치고 86년도 중앙대학교 조소학과에
입학을 하게 된다. 독재정권 하의 대학생활이 많은 고
민을 동지에게 던져주었고, 이내창 동지는 말을 앞세우
기 보다는 작은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게 민족과 민중
을 위해 투쟁하기 시작했다.

87년 자신의 전공을 활용하여 예술이라는 무기를

투쟁속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판화패 동
아리 "새김"의 창설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직을 수행하
며,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 판화패 "새김"은 학우들의
적나라한 생활상을 표현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
순까지 구체적인 작업으로 형상화 시켜냄으로써 학내
에서 가장 대중적인 동아리로 자리를 잡는다. 이러한
활동들을 거치면서 88년도 조소학과 학생회장으로 당
선되어 학과내의 제반 모순들을 척결해 가는데 있어서
어떠한 타협도 없는 투쟁을 전개하며, 학원자주화투쟁
을 통해 과성원들의 염원이었던 "실기실"을 쟁취해내
는 성과를 이룬다. 또한 사업을 통해서 학우들을 만나
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만남속에서 학우들에게 다
가가는 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단결의 기운을 만들어
가는 모범적인 생활을 지속해 간다. 그만큼 사람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동지의 생각이 실질적인 생활속
에서도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서 동지는 좀 더 치밀하고 깊게 사회의 구조적 모
순에 대한 고민들을 진행시켜 나가게 되며, 89년도 중
앙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총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된다.

8천 학우를 임기 동안 세번씩 만나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막중한 총학생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짜증 한번 내지않고 주변의 집행부들과 동지들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보다는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민주적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통일시켜 나간다. 상반기를 지나면서 통일투쟁을 준비
하는 과정에 있었던 8월 이내창 동지는 공안탄압의 광
풍속에서 안기부에 의해 유인타살된다. 보안사에 의한
생매장 고문의 협박을 받았던 국민대 김정환씨가 안성
에 머물던 동안 그와의 연결선상에서 안기부 직원에
의해 유인, 거문도에서 타살된 것이다. 의혈중앙의 2만
학우를 중심으로 사인진상규명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
하였고, 전대협이 백만학도와 함께 동지의 사인을 규명
하기 위한 전국적인 투쟁이 들불처럼 번져나가 독재정
권의 공안탄압을 투쟁으로 극복하는 강위력한 싸움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전대협의 중앙위원으로서 독재정
권의 칼날에 쓰러져간 동지의 뜻을 잇기위해 "전대협
장례식"을 거행하며, 이후에도 한겨레 신문사와 함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한 투쟁이 지속된다. 동지

는 비록 현재 광주 망월동에 묻혀있지만 동지가 이루
려 했던 자주.통일에 대한 뜻은 의혈중앙의 모든 이들
에게 아직도 살아남아 있으며, 그 뜻을 변함없이 이루
고자 추모비를 건립을 비롯한 다양한 추모사업이 현재
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의 글로 마치려 한다.

이내창 동지는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그
들의 자주성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 예술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평소의 말대로 철저한 자기수련의 자세를
가진 소박한 예술인이었으며, 한편으로는 2만 의혈중앙
인들의 자주적 권리를 되찾는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섬
이 없는 단결의 구심이었다. 그러나, 동지는 무수한 투
쟁 경력이나 강인한 투사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애국적
인 자세와 검박한 품성, 그리고 따뜻한 동지애로 더욱
의혈 중앙학우들에게는 잊혀질수 없는 분이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시)

이내창 열사여

이내창 열사여

그대는 우리조국의 통일열사로 태어났다.

우리 강토의 침략자로 들어온

아메리카 양키들의 하수인들에 의해

그대는 조국을 위해 싸움 한 번 못하고

아무도 없는 텅 빈 바다

그 어딘가에서 죽음으로

그리하여 우리들은

그대를 의문사라고 부른다.

노태우의 독재하에서 일어난 최대의 의문사 사건중

광주에서 투쟁의 불꽃을 피웠던 이철규 열사로부터

우리의 영웅 이내창 열사로 이어진 의문사

얼마나 통곡하며 독재와 싸웠던가

이내창 열사는 알리라

광주망월동에 누워있는 이내창 열사는

광주 영혼들의 한이 풀릴때에

광주민중들의 뜨거운 눈물을 닦던 그 날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우리가 기필코 자주 민주 통일정부를 세워
우리들이 우리대에 통일정부를 세워
역사의 한이 된 그대들의 눈물을 닦으리라

자 이제 여기에서 슬퍼할 때가 아니다
슬퍼하며 눈물 흘릴 때가 아니다
조국의 부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이내창 열사가 다하지 못한
이내창 열사가 다하지 못했던
조국을 하나로 잇는 민족해방 투쟁에
힘차게 힘차게 나서자

이내창 열사여
그대는 우리조국의
영원한 통일열사로 태어났다
(진관스님이 추모비에 바치는 시)

◎ 유고글

80년 5월의 하늘을 붉은 피로 물들인 학살의 원흉
이자 부정과 부패의 주범 전두환 구속 처단과 그의 쌍
둥이 형제 노태우의 단죄를 요구하는 4천만 민중들의

열화와 같은 합성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는 지금, 광
주학살의 진상을 명확히 밝혀내고, 동족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살인마를 처단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조국이 이 시대 청년학도에게 부여한 가장 절박
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이땅의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과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8천학우 여러분!!

저는 요즘 온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속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한통속인 민정당
과 보수야당의 미온한 대처속에서 "모른다", "기억에
없다" 등의 거짓말만을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은 더 이상 학살의 주
범들이나 보수야당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며, 학살과
폭정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이 땅의 4천만 민중들의 손
으로 날날이 밝혀져야 합니다. 여기에 이 땅의 청년학
도는 조국사랑의 피끓는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싸워나
가야 할 것입니다.

(총학생회장에 출마했을 당시의 유세문 중에서)

김 용 갑 (당시 24세)



1966년 2월 28일 강원도 흥천 출생
1981년 대명고등학교 입학
1989년 숙초 동우 전문대 입학
1990년 동우전문대 총학생회장
학원자주화 투쟁 전개
1990년 3월 28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숙초 동우전문대는 재단측이 폭력배를 '구학대'로
조직하여 학원내 민주적 요구사항을 폭력으로 압살하
는 반민주적 학원풍토를 조성, 심지어 학생과 직원들은
재단의 지시대로 학원내에서 공공연히 폭력을 구사하
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횡포를 일삼아 왔다.

김용갑 동지는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학원내 비리
를 척결하고 학원의 자주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
는 과정에서 재단측에 의해 고용된 폭력배들에게 수시
로 협박과 구타를 당하고 회장 사퇴를 강요당해왔다.
또한 학생과 직원인 김진(33세)으로부터 "나를 배신한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차로 갈아서 죽여버리겠다. 사람
을 차로 받아 죽여도 과실치사로 6개월 밖에 살지 않는
다. 그러나 나는 남을 시켜서 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학생들은 우연히 이 내용을 녹음하게 되었다고 한다)
3월 8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던 설악 유스호스
텔에서 방에 감금된 채 집단폭행까지 당했다. 사건 며
칠전부터는 학교측의 갖은 협박과 폭력때문에 신변에
위험을 느끼고 칼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시달림을 당
하고 있었다.

90년 3월 28일은 바로 동우전문대 최초로 세워진
자주총학생회 발대식이자 전면적인 학원자주화투쟁이
예정되어 있었던 날이었다. 이것은 학원측에서도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김용갑 동지의 죽음에 의문점
을 더하는 것이었다.

사건 직전인 3월 27일, 김용갑 동지는 전날(3월 21
일) 신입생환영회에서 난동을 부린 학생 5명과 만나 그
들을 달래주기 위해 함께 있다가 밤 11시 25분경 이들
과 헤어진 뒤 다음날 새벽 2시경 좌측 다리골절, 턱부
위 외상, 양사타구니 안쪽에 응혈, 왼쪽 정강이 부위에
눌린 자욱 등의 외상이 있는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이후 문종석이라는 자가 범인이라고 자수해왔으나
많은 의문점이 발견되었다.

◎ 의문점

1. 사고차량 행적의 의문점 및 범인이라고 자수한
문종석의 경위설명 중 의문점

1) 경찰에서 범인이라고 밝힌 문종석은 사건 이틀
후에 경찰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했으나, 대책위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노름빚을 갚아준다는
재단측의 약속을 받고 자수했다 함.

2) 문종석은 사고 당시 김용갑 동지와 부딪히면서
앞유리창과 백밀러가 파손되었다고 했으나 차체가 망
치나 돌맹이로 인위적인 파손을 가한 흔적이 있음을
밝혀내자 사고 후 마산누님에게 부탁해서 가져온 앞유
리와 백밀러로 교체한 후 자수하기 직전 원상태로 만
들어 놓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이 망치를 이용해 파손
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당시 앞유리가 깨져 혼자 교체했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앞유리는 혼자 교체할 수 없다고 한다.

3) 문종석은 사건 당시 동승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하나 목격자들은 승용차안에 3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4) 문종석은 당시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브레이크 자국이 전혀 없고 "끼익"하는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도 없었다.

5) 문종석은 사고 후 차량을 속초시 교동 소재 로얄아파트 앞에 주차시켰다고 하는데 당시 인근 주민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6) 사고차량은 르망 신형승용차로서 보통 조그마한 충격에도 파손이 일어나는데 사고차량은 70킬로그램 이상되는 성인과 부딪혔는데도 이렇다할 파손 흔적이 없었다.

7) 문종석은 사건 당시 전방 20미터의 차량을 추월하려다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였으나 목격자들은 당시 문종석이 추월하려던 차량은 없었다고 한다.

2. 사고현장 및 시신의 의문점

1) 시신의 상태가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차렷상태로 있다는 점(왼쪽 다리가 부러지고 턱뼈가 으스러지는 등 고통이 심했을 텐데도 시신은 아무런 고통의 흔적도 없이 그렇게 반듯이 있을 수 있는가)

2) 범퍼로 받아 부러졌다는 주장에 비해 부러진 좌측 다리부분은 범퍼의 높이보다 약 10센티 높았다.

3) 구두가 모두 벗겨져 각기 시신을 중심으로 우측 신발은 시신의 후방 32m지점의 숲속에서 발견되었고, 좌측 신발은 전방 30m 지점에서 발견 되었다.

4) 시신에 신겨진 양말이 반쯤 벗겨져 있었다(이것은 누군가 시신을 잡아서 끌어올 때 생길 수 있는 것이다)

5) 턱위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는 한방울의 피도 흘려 있지 않았다.

6) 와이셔츠에는 두 줄기로 찢겨진 흔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찢겨진 듯 예리하게 찢겨져 있었다.

7) 와이셔츠에는 다량의 피가 묻어 있었으나 함께 입고 있던 점퍼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

8) 문종석은 고속으로 달리다가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나 현장에는 급브레이크시 나타나는 스퀴즈마크(타이어 자욱)가 나타나지 않았다.

3. 2시간 35분의 공백

문종석은 당시 사고시각을 새벽 2시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김용갑 동지가 폭력배 5인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11시25분에서 그 시각까지 약 2시간35분의 공백이 남는다. 동지가 동행인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는 속초시 노학동 소재 마니또 분식점 앞이었으며 그곳에서 사고현장까지는 천천히 걸어서 불과 20여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동지는 그 2시간 15분여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말인가?

4. 한번도 가지 않던, 더구나 가로등조차 없는 음산한 도로변으로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동지는 평소 동지가 알고 있는 2군데의 지름길로 집을 다녔다. 더군다나 사고 현장의 길은 가로등조차 없는 외진 길이라 밤이 되면 그 누구도 그 길로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또한 상당히 위험한 기간이었음을 잘 알고 있는 동지가 마니또분식점 근처 노학동에 있는 친구집에 들리지 않은 채 늦은 밤 그 길을 통해 집에 가려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 친구는 집에 있었다 한다.

5. 이런 사실을 볼때 경찰은 고의적으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애를쓰고 있음이 드러나고, 타살한 이후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곳에 옮겨다 놓은것으로 추정된다

신 장 호 (당시 21세)



1970년	서울 정릉 출생
1989년	인천 기계공고 졸업
1989년 3월	성남 대유공전 건축과에 입학 노래패 「어울림」 가입, 부장으로 활동
1990년 5월 18일	광주 성지 순례와 전대협 4기 출범식 참가를 위해 광주로 가던 중 장성에서 검문을 피하려다 열차에서 추락, 전남대 병원에서 문명 제5기 전대협 출범식에서 '전대협 영웅상' 수상
1991년	

◎ 사건경위

광주 성지 순례와 전대협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가던 중 신장호 동지와 후배들은 검문 검색을 피하기 위해 광주 외곽인 장성에서 나가려다가 검문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다시 열차에 탑승했다. 그들은 조금 지나서 뛰어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나 뛰어내린 신장호 동지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인해 안타깝게도 운명하고 말았다.

◎ 동지를 생각하며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조국의 푸르른 오월 대지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이땅의 아들 딸들을 보듬어 민족의 앞날을 책임지고 갈 애국의 세대로 키워왔습니다.

비록 미제국주의에 민족 자주권을 빼앗긴 식민의 땅이지만 선배 열사들의 피로 얼룩진 붉은 하늘을 보며 저버릴 수 없는 동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새날 새 조국의 희망으로 우리는 이땅을 지켜왔습니다.

1990년 5월19일 차디찬 철로위에 전대협 사랑과 조국해방의 염원으로 뛰어내리신 신장호 열사는, 그 열사는 저 간악한 미국과 노태우 일당의 공안의 칼날을 부러뜨리고 분노로 살아남은 자들에게 "독재정권의 명줄을 끊어버려야 한다.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백만 청년학생의 조직 전대협을

더욱 강화하여 전총련을 건설하고 자주 학원을 건설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백만청년 학생의 심장에 영웅으로 살아계신 신장호 열사!

그분이 살다가신 교정에 남아있는 자들의 몫은 부끄러움이 되어서 안됩니다.

영웅이 가신 한길에 힘차게 펼쳐 나서는 학우들 속에서 생활의 모범으로 조국의 하늘아래 투쟁의 모범으로 자랑찬 길을 가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용성총련의 5만학도는 열사의 죽음으로도 이루지 못한 살아 생전의 염원을 5만학우의 가슴가슴에 담아 열사가 그토록 외치시던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쉽없이 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열사를 보낸 우리 청년학도는 울분과 실움에 지쳐 헤매이는 모습이 아니라 열사를 심장에 묻고 분노와 투쟁으로 독재정권의 집권연장 음모에 파열구를 내고 민주정부 수립 투쟁에 하나와 같이 일어납시다. 그동안 독재 정권 속에서 숨겨진 열사들의 한을 우리가 풀어야 한다는 결의를 가지고 5, 6월 대 투쟁에 힘차게 달려갑시다.

용성 5만 학도는 신장호 열사의 후에 대유 4천학우를 사랑하며 함께 투쟁을 벌여 나가기를 바라고 신장호 열사의 전대협 사수, 용성총련 사수의 의지를 이어 받고 백만학도의 사랑모아, 힘차게 투쟁합시다.

(투쟁의 불사조 제 6기 용성총련 의장 최만식)

◎ 추모글

〈시〉

그대 오월의 피 조국의 피로 살아

1.

여기 식민의 땅
 피먹은 5월 신록이 푸르러 눈이 시린 5월에
 꽃보다 젊은 나이
 신장호 열사를 죽인 것은 미국놈들이다.
 코와 귀와 입에서 피보다 진한 꽃잎처럼
 솟구치는 핏방울
 달리는 기차에서
 열사를 죽음으로 떠민 놈들은 너 노태우
 민자당 독재정권
 선연한 진달래 꽃잎같은 핏자욱 흘리며
 5월 불바람 속으로
 뜨거운 황토길을 걸어가는구나.

2.

내일은 광주 성지 순례와 전대협 출범식이
 있는 날
 한치 자유로울 수 없는 식민의 땅
 성남에서 광주까지 결코 짧지 않은 거리
 비는 자꾸 내리고
 자꾸 내려 황토물 뿜게 지는데
 폭력경찰의 그 어떤 검문을 뚫고서라도
 광주로 갈수만 있다면
 향시 부는 바람처럼 그리운 빛고개로 가야 한다.
 달리는 광주행 기차
 감시의 눈초리가 빛나고 조마조마한
 맥박소리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민주의 손목을 꼭 잡아본다.

추모시 中 (경원대 민중문화회)

〈동지를 그리며〉

인간적인 신장호 동지

보슬비가 내리는 1호관 광장에서 광주 민중 항쟁의
 투쟁의 의지를 불사르며, 제4기 전대협 출범식을 사수
 하기 위해 출정식을 갖는 학우들을 보며 난 가슴 뭉클
 함을 느꼈다. 그때 나는 할머니의 수술로 같이 못 가게

되어 무척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때가 내가 장호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기에 더욱 그러
 했던 것 같다. 90년을 되짚어 장호를 생각해 본다. 90년
 5월 광주민중항쟁을 맞이하여 나는 동아리 후배들과
 신구대로 향했다. 신구대 집회 중 장호와 나는 2인 1조
 가 되어 신구대 주변을 살피게 되었다. 신구대쪽은 언
 덕이 있어 전경들이 잠복해 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우
 리는 2학년이 되어 후배들을 맞이해 새롭게 각오를 다
 지던 시기였다. 같이 신구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나는
 이야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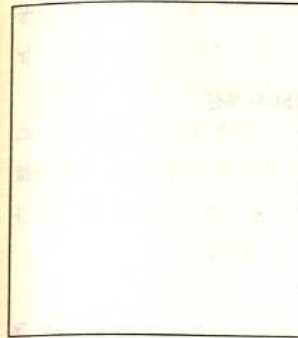
“회정아, 나 요번 대동제 동안 너의 동아리(민속연
 구회 탈) 후배들과 많이 친해졌다. 같이 어울려 술먹고
 토론하고 포개져 잤더니 짧은 시간에 많이 친해진 것
 같아”라고 하기에 “이제 2학년이 되었으니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타동아리 후배들도 같은 동아리 선배처
 럼 잘 챙기자”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때까지 아는 정도로만 생각하던 장호가 더욱 가
 까워진 것 같았다. 그 이후에 학교에서 출정식을 가졌
 고 장호는 1학년인 민주와 종훈이와 함께 광주로 향했
 다. 5월 20일 오전 아침 식사중 아빠가 신문을 보시면
 서 “회정아, 너의 학교 애가 광주 내려가다가 죽었다.”
 라는 말에 놀라 신문을 보니 장호의 기사가 한겨레 신
 문에 났다. 놀란 가슴에 학교에 전화를 거니 선배들이
 일단 학교에 나오라 해서 동기와 후배들에게 연락을
 하고 학교로 향했다. 학교를 가니 소식을 들은 학우들
 이 모이기 시작했고, 후배들과 대자보 및 선전전을 오
 후까지 하고, 같이 내려갈 학우들을 모아 오후에 서울
 역에서 기차를 탔다. 그때까지도 검문이 심해서 우선
 광주근교에 내린 다음 21일 아침에 택시를 타고 전대
 병원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이진 꿈일거야 하는 마
 음과, 아직 살아있으리라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있었
 다. 그러나 영안실에서 장호의 싸늘한 모습을 보는 순
 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 이후 장호의 장례식
 까지 계속 광주에 있으면서 전경들의 계속되는 시신탈
 취 기도와 그 와중에도 의연히 장호를 지키는 사수대
 학우들과 가슴 한구석에 아들을 묻고도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신 어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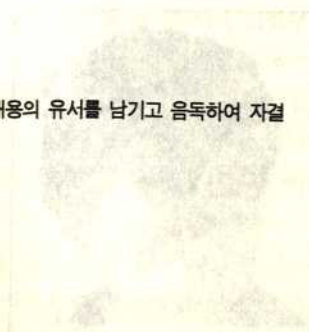
가슴속에 살아있는 장호를 다시 한 번 느끼며 이
 글을 마친다.

대유공전 사무자동학과 89학번 김희정

정 성 목 (당시 17세)



1973년 출생
 1989년 충남 공주고 입학
 1990년 6월 4일 교육방법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음독하여 자결



◎ 사건경위

1990년 6월 4일, 충남 공주고 2년(당시 18세)으로
 재학중 “나의 희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교
 육방법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변화가 있었
 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내용

의 유서 5장을 남기고 기숙사에서 음독자결, 종아리와
 등에 멍든 자국이 있었다.

이 유서 5장은 남기고 기숙사에서 음독자결, 종아리와
 등에 멍든 자국이 있었다. 유서 내용은 “나의 희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방법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내용이다. 유서 5장은 남기고 기숙사에서 음독자결, 종아리와 등에 멍든 자국이 있었다. 유서 내용은 “나의 희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교육방법이,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정책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라는 내용이다.

김수경 (당시 18세)

墓 化 장



1972년 출생
1988년 대구 경화여고 입학
1990년 6월 5일 밤 10시 25분경 영남대 인문관 옥상에서 투신
1990년 6월 11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89년 전교조 운동때 대구 경화여고에서는 김수경 동지의 담임이었던 최진열 교사를 포함해 모두 6명의 교사가 해직당하였다. 이때 김수경동지는 해직단체 시위를 여러차례 주도하고 그것으로 인해 문제학생으로 "찍히게" 되었다.

그 후 동지는 학생회 총무부장이 되어 학생회장과 함께 학교를 이끌게 되는데 당시 대구의 다른 학생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했던 경화여고 학생회는 많은 탄압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수경 동지는 친구와 함께 서진교 교사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지는 폭행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학생회장 차은남 양에게 쪽지편지를 전해주고, 부모에게 유서를 남긴 후 최진열 교사에게 편지를 부치고 투신하였다. 결국 김수경 동지는 자신의 죽음이 왜곡되지 않길 바라며 90년 6월 5일 11시경에 영남대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수경아!

그렇게 갔구나. 그렇게 훌쩍 먼 곳으로 가 버렸구나. 무엇이 너를 19살 싱싱하고 꽃다운 젊음을 미련없이 떨어버리는 그 어둡고 괴로운 죽음의 길로 데려갔느냐?

지난 날 나는 보았다. 언제나 유쾌한 말로, 건강한

웃음으로 친구들을 너스레맞게 대하는 네 마음의 넉넉함을.

그러나 지난날 나는 보았다. 우리가 없는 빈자리를 애써 포내지 않고 억울하고 힘든 일 꾀꾸 놀러 참으며, 그래도 씩씩하게 웃으며 친구들을 하나로 이끌어내던 너의 강함을.

수경아. 나의 수경아.

죽음은 끝이다. 그래서 더욱더 가슴이 저머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저 햇살을, 저 내리는 비를, 저 아름답게 피어있는 들판의 꽃을 네가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가슴 아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슬픔이 슬픔만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너의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나버리고 네가 정신병자가 되어 그 먼길로 가 버린다면 이 땅에는 또다시 얼마나 많은 피맺힘과 눈물들이 뿌러지겠니? 얼마나 많은 젊음들이 피를 흘리게 되겠니?

수경아, 네가 죽음으로써 뿌리고 다져놓은 아픔이라는 토양 위에서 자라나는 많은 이땅의 세대들에게 우리는 그래, 우리는 연약한 콩나물이 아니라 튼튼하고 강한 콩나물로 자라날 수 있는 참교육의 물을 뿌려줄 것이다. 더 이상의 아픔도, 더 이상의 죽음도 이제는 용서하지 못한다. 네가 그렇게 우려하며 네 죽음을 왜곡하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도 무서운 속도로 네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 너의 죽음을, 네 젊음의 보상을 참교육의 외침으로 일어서고 있는 우리는

이 땅 자라는 세대들에게 우리는 꼭 갚아주리라.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는 자들도, 너의 죽음에 눈물 아닌 눈물을 보이는 자들도 우리가 이 벽을 깨고 일어서는 그 날 진심으로 너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통곡하리라.

수경아, 먼길 떠나 지금도 편히 쉴 곳을 찾지 못해 그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수경아. 너의 꽃다운 젊음의 회생위에 더 이상의 눈물을 뿌리지 않으나. 이 내리찍는 햇살을 더 이상 네가 볼 수 없음을 잊지 않으나.

(참교육 2년 6월9일 전 담임교사 최진열)

◎ 추모글

(시)

그 붉은 넋으로

병상일지를 읽으면서

느껴 보지도 못한

너의 살 썩는 냄새가 코에 와 박힌다

물을 달라고 괴로워 하던

까매진 얼굴이 눈에 와 박힌다

타다 만 유서에서

가슴 메어지는 참세상의 열망을 막아 넣고

힘겹게 녹음된 그 목소리로

정국을 분노케한 음성에서

변하지 않을 너의 신념을 나눠 가져 본다

너를 보내던 그날은

장대 같은 비가 내렸는지

불 붙은 몸으로도

혼자서 꽃꽂이 가마 하던 그 길을

이제

우리가 가련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듣고 싶어 하던

널 기억하며

우리 꼭

그 길을 가련다

너의 5월 붉은 가슴을

6월 피빛 넋을

우리 꼭 지키마

결코 뺏기지 않으나

(경화여고 92년 졸업생 김정성의 추모시 中)

◎ 유고글

(유서)

선생님! 먼저 이런 글을 올리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걸 용서부터 해주세요. 뭘 어떻게 써야 할지 타고오는 버스속에서 한참을 생각했는데 결국 남는 건 제게 남은 건 눈물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도착할 때 쯤이면 아마 전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자살'이란 것에 동경을 느껴오긴 했지만. 3학년에 올라온 전 한창 꿈에 부풀었습니다. 어림없는 성적으로 서울에 가고 싶다는 엄청난 꿈을 꾸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도 설새없이 계속되는 보충수업, 정규수업, 방수수업, 자율학습...

모든 게 숨이 막혀도 아주 잘 참아냈어요. 가끔씩 몸이 아프긴 했어도 견딜 수 있었구요. 그동안 3월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형편없는 성적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 구석에서 이제까지의 걸 지켜온 건 '할 수 있다'는 오기 하나였습니다. 4월 초순에 접어들면서 상담이란게 시작되었습니다. 1번, 2번,...10번 학생실까지 갔다오고, 모두 침울해하고 간혹 우는 애들도 있고 잔뜩 긴장을 했었지요. 그러다가 허리의 통증 때문에 제 상담 차례를 어기고 엄마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잠깐 엄마와 담임과의 대면이 있었는데 그 틈을 이용해 은남이 선거때 찬조연설했던 얘기, 학교에서 주시하는 인물이라는 등 씨클에 가입되어 있느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 식으로 얘기(고자질)를 했었던가 봐요.

물론 그 자리엔 제가 없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그날 저녁 엄마가 제게 조용히 얘기를 하시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오히려 제가 화를 내버렸어요. 그 다음날 전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꼴을 하고는 진학실로 갔습니다. 앉자마자 대뜸 묻는 얘기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주 만나는 선배 얘긴 뭐냐", "전교조 선생님이 어찌고 저찌고..." 뚫어오르는 그 뭔가를 참으며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하고는 성적얘기 30초, 그렇게 진학실문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그때 제 기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비겁하고 비굴하게 왜 이렇게 초라한지 친구등에 얼굴을 묻고 그냥 울어버렸어요. 그렇게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국사시간마다 눈은 제가 앉아있는 분단 쪽을 향했

고 분단 아이들이 당황했어요. 선생님! 제가 작년에 전 교조를 지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그런 선생님을 더 좋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학교다니기가 불편하다면 아니 고통스럽다면 이미 그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오늘 청소시간에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귀를 맞고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교! 그 사람은 제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였는지 순종이 좋지 않는지 그러다가 퇴학이 어찌니 저찌니 앞으로의 사회생활이 어찌니 저찌니 그러곤 자신이 너

무 했었다고,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확실히 전 학교가 주시하고 있는 주요인물이었습니다. 모두들 제가 걸려들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왜 제가 죽으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참고 이겨보려 했지만 이제 모든 게 싫습니다. 제가 어린 학생이 아닌 어른이 되어버린다면 아 니 세상에 물들어 버린 어른이 된다면, 그런것도 두려우요,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90. 6. 5. 수경 울림

심 광 보 (당시 17세)



1972년 12월 5일 충북 증원군 양성면 영죽리 출생
1986년 양성중학교 입학
1989년 충주고등학교 입학
1990년 5월 휴학
1990년 9월 8일 운명

墓 化 장

◎ 동지의 삶과 죽음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참교육을 열망하는 전교조 선생님의 영향 밑에 독서모임에 참가하여, 사회 의식에 눈을 뗀 동지는 고교 2년때 가정형편으로 휴 학하였고, 그후에도 노동일을 하며 참교육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던 중 90년 9월7일 오후 2시20분 충주시 성서 동 김윤택 치과의원건물 3층 옥상에서 "농민이여, 농민 의 깃발을! 노동자여, 노동의 땀방울! 전교조여, 참교육 의 함성을! 이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후 투신. 서울 강동병원에서 투병 중 9월8일 새벽5시경에 운명.

◎ 동지를 생각하며

그는 자기 한 사람만의 안락한 지위를 보전하기 위 해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참교육을 갈망하는 슬 한 교사들을 교단으로부터 추방하는 교육,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독재 권력에 순응하는 인간형을 길러내 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교육,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한몸만의 영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치는 교육관료들로부터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 리고 우리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오늘날 철저히 왜곡 된 교육의 희생자는 바로 학생과 학부모 자신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공부는 우리들을 일찍 부터 치열한 생존의 전쟁터로 내모는 입시공부가 아니 라 참되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공부, 그리하여

나라와 민족에 보탬이 되는 공부라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의 주체로 서서 민족, 민주, 인간화, 통일 을 위한 교육을 실현해 나가라고 우리들에게 절규하였 습니다.

비록 우리는 열사를 보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 게 되었습니다. 열사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의쳤는 지.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준 열사께 감사하며 앞으로 모두가 주인되는,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화 교육의 참교육을 약한 자가 주인되는 참세상 을 위해서 우리는 열사의 뜻을 쟁취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 고등학생 기독교 운동 충주연맹 "잊혀져 가는 친구 광보의 죽음을 되새기며" 中에서〉

◎ 유고글

〈유서〉

전교조 선생님께 드리는 글

이렇게 깊은 인연이 또 있을까요?

작년 구월계였을 겁니다. 작고 후미진 그런 사무실 이 이제 제법 자리를 잘 찾아 잡았네요.

벌써 일년이란 세월 동안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더 니만 부랴부랴 떠나게 되었군요.

너무 상심해 마십시오. 오히려 세상에 흘릴 눈물이 부족하리라 봅니다.

참교육 그날을 보고 싶은 마음, 저 도도히 흐르는 남한강보다 더 깊이 깊이 설레입니다.

나라꼴이 어찌 되려고 인간을 인간답게 가르치려는 뜻을 이다지도 모른체 합니까?

히나 국민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이겨가십시오.

어느덧 무덤고 긴 여름이 갔네요. 그리고 서늘한 바람을 몰고 가을이 왔고요.

그래요. 어둠이 가고 빛이 올 때라 봅니다. 희망을 담은 새 아침의 날이, 날로 날로 새로와지는

꿈인줄로만 알았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아, 눈부신 햇살이여. 우리들의 희망찬 날이여.

선생님.

할만큼 후퇴했습니다. 할만큼 침묵했습니다. 자, 끊어버리십시오. 억압의 사슬을.

무너뜨려요. 갈라짐의 장벽을. 거두어 들여요. 쭉정이를.

참교육 안고 돌아라. 바람아. 바람아. 한반도를 휘휘 불어가라.

오라. 오라. 참교육 안은 바람이여!

1990. 9. 6. 심광보

사람사랑 친구여.

1990. 9. 6. 심광보

나 이제 떠나네. 무슨 말을 더하나, 다만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네. 그래야 '큰 힘' 앞에서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을 거네. '참교육' 난 말일세 이처럼 소중한 선물을 받은게 너무 기쁘다네. 생일선물보다도 더 희열이 넘치네. 함께한 지난 날들을 죽어서도 잊지를 못할 걸세. 나의 삶, 우리들의 삶을 바꿔 준 서로의 만남을 어찌 잊을 수 있겠나.

가을은 가을이로군.

안녕히.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1990. 9. 6. 심광보

◎ 추모글

故 심광보 학생 분신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생략 ...

심광보 학생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고, 누구나 고르게 평등하게 사는 사회, 차별없이 교육받고 선생님의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 갖고, 가르침받는 참교육 실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교조 선생님들에게 커다란 존경심을 보내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선생님들이 더욱 용기를 내어 싸워 나가길 바랬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시대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가난, 교육실현등의 사회적 모순을 증언한 심광보 학생에게 우리 시민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은 삼가 조의를 표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와같은 죽음을 당해야 하는 현실의 책임은 민족과 조국이 전적으로 져야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를 주고 열을 주지 못한 아버지와 혈육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세상, 그리고 참교육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 교사, 학생, 시민 모두가 진정한 교육의 관련자요, 주체로서 나서야 할 것이며, 고통받는 학생들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기 위해 함께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1990년 9월10일 민주학생 고 심광보군 장례를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

<추도사>

이제 같이 할 수 없는 제자 광보에게

유서에서 말한대로 이렇게 깊은 인연이 또 있을까? 광보야!

옷깃을 스쳐도 인연이라더니 나의 부덕으로 제자를 먼저 보내는 아픔이 되었구나. 산골짜기 시골 그대로 청순하고 순박한 학생 광보. 참교육 뜻 담임이 못이루면 대신 한다던 광보.

이 못한 담임이 끝까지 보살피 주고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못내 원통하고 죄스럽구나.

참교육의 학교생활, 훈훈한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사는 세상, 정말 살 맛나는 세상, 얼마나 갈망하고 몸부림쳤는가? 그렇게 갖고 싶은 것을 미련없이 다 버리고,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에덴동산을 일구러 갔구나. 슬프고 원통하구나. 어린 너를 가게 한 것이.

가슴속으로 입을 그리는 한많은 민중의 가슴을 아직 채워주지 못하는 한반도 이 땅에서 우리 만나, 난 벌써 사십의 접대기 바람 든 무우가 되고, 제자는 사십없이 꽃 한송이 되어 한반도를 사랑했구나.

부끄럽기 짝이 없다. 유서를 친한 친구들보다는 단체에 보내고 변화가인 중심지에 죽음의 장소를 택하여 헛된 죽음을 아니하겠다는 너의 뜻을 우리 모두 안다. 너의 죽음의 뜻 심본 살리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난 널 마지막 보내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보았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감싸 이해하고 잘 가다오.

낙심말고 잘 가다오. 광보야. 에덴동산을 일구려는 너의 뜻을 안 이상, 한반도 이 땅에도 그리던 입은 반드시 오실거구나. 이제 우리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까지 사랑하고 흠으로 잘가거라. 잘가거라.

민주 학생 심광보야! 고이 잠들기를.

1990년 9월 12일 고 1 담임 황연길

<시>

새로 꽃 한 송이 심으마
죽어간 이 땅의 아이들에게-

잘 가거라
기왕 떠난 길 부디 잘 가거라

다시는 지옥같다는
학교길 입시 전쟁길 점수 공장길
오지 말거라
그냥 가거라, 뒤돌아 보지 말고
바람인 양 꽃잎처럼
그렇게 가거라
우리 가슴에 피눈물 그치고
너훤 반겨 함박꽃 웃음으로
마중 갈 수 있을 때까지
행여 오지 말거라
너희가 바라던 것 이를 때까지
부끄러운 우리 앞에 오지 말거라
시험, 점수, 입시, 경쟁, 미움, 원망
온갖 무거운 짐 사라지고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학교
너희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다시 돌아온 학교
참교육 교실
통일 교실
더불어 사는 삶을 가꾸는 교실
그날이 오면
그래, 그 날이 오면
그 날 이른 흠문은 손으로
제일 먼저 너희들에게 알리마
투쟁과 사랑의 노래 힘차게 불러
기쁨의 눈물 범벅이 된 채로
너희가 묻힌 땅
한 평 무덤가에
새로 꽃 한 송이 심으마

김시천

김기훈 (당시 23세)

墓 미 확인



1967년 4월 5일 대구 출생
 1986년 대일 고등학교 졸업
 청주사대 역사교육과 입학
 1988년 홍사단 아카데미 회장
 제4대 동아리연합회 학술부 차장
 8.15 남북학생회담 통일선봉대 출정
 1989년 제20대 혁신총학생회 사회부장
 농촌활동 준비위원장
 1989년 8월 병약화로 휴학
 1990년 9월 15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김기훈 동지는 87년 역사교육과에 입학하여 1학년 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사대 수호투쟁에 앞장서 싸우다 유기정학을 받은 이후, 학교와 조국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갔다. 꾸미지 않은 소탈한 모습의 그는 성실하면서도 소박한 생활 가운데서 과내에서의 많은 동료 및 선배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88년 통일선봉대에 참가하면서 투쟁의 의지를 다져 나갔다. 89년 제20대 총학생회 사회부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집회를 선두에서 이끌며,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학자투 기간에 7일간의 노천 단식중 몸에 이상을 느꼈으나, 단식을 끝낸 후 병원에 입원하여 진단을 받는 투철한 책임의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농활위원장으로 일할 때, 그의 병이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쓰러질 때까지 약을 먹어가며 농활을 지도했다는 데서도 동지의 책임감이 여실히 드러났다. 동지는 89년 2학기 투병생활에 들어가 89년 9월15일 동료들의 비통함을 뒤로 한 채 눈을 감았다.

최응현 (당시 21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69년 8월 29일 경북 울진군 출생
 1984년 세종고 졸업
 1987년 한양대 섬유공학과 입학
 1988년 6월 전방입소 반대투위 부위원장 활동중 구속
 1989년 복학
 1990년 11월 8일 한양대 옥상에서 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한양공대 입학 후 학생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88년에는 전방입소 반대투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에 6월 구속되어 11월에 집행유예로 출소하였다. 1989년 복학을 하였으나, 가정형편 상 다시 휴학과 복학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변혁운동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가, 1990년 11월8일 돌연 한양대 교내 건물 옥상에서 민주화투쟁에 제대로 복무하지 못함을 자책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하여 운명하였다.

◎ 유고글

〈편지〉

응석형 보시오.

형 편지 잘 받았습니다.

난 형이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나보다 더 잘지내는 구만요.

형 편지 보면서 몇가지 느낀 게 있는데

하나는 나보다 글씨를 잘쓰구, 또 하나는 글(문장)이 참 멋있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금 독거방에서 혼자방으로 전방을 하려고 해요. 현재 나 자신이 스스로 나 자신을 변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해졌어요. 그냥 흐르는 세월에 몸만 맡겨논 셈이죠.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생활하면 50일간의 생활

과는 다른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 몸속으로 민중들의 어려운 삶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단순히 지식이나 사상 실천의 천박함만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요.

이곳에 와서 느낀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구 · 조 · 적 · 모 · 순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반민중적으로 살아 왔는가, 얼마나 편하게 지내왔고, 내가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민중들에겐 일상생활에 불과하다는 것들,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두려움, 고통 계속 나 자신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형을 존경합니다.

몸 건강히 잘 계세요.

88. 8. 27. 최응현

남 현 진 (당시 21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1970년 2월 22일 경북 예천 출생
 대구 대건고 졸업
 한국외국어대 영어과 입학
 1988년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차장
 1989년 전대협 한라선봉대 응성총련 대표
 1990년 11월 19일 군 입대
 1991년 2월 3일 의문의 죽음을 당함

◎ 사건경위

90년 11월 19일 논산 제2훈련소 입소
 91년 1월 14일 논산 제2훈련소 퇴소(08주특기 받음)
 23일 연대 배치(주특기가 08에서 소총부대로 바뀜)
 24일 자대 배치
 25일 전방입소 훈련 떠남, 내무반에서 친구에게 편지 이후 이창호 하사와 대화 나눔. 이때 이창호 하사가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의 적은 누가 되는가?"라고 묻자 남현진 동지는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함
 2월 2일 훈련을 마치고 새벽에 자대도착
 3일 오전 10시경 교회를 다녀온 후 의무반에서 무릎상처를 치료받고 감기약 타감
 오전 11시 30분경 한 일병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3-5인분의 빵과 음료를 사들고 있는 남현진 동지를 목격
 오후 2시 50분 부대밖에서 목을 멘 시체 발견

◎ 유고글

- (1) 남현진 동지의 키가 1미터 75센티인데 팔을 뻗치면 쉽게 닿을 수 있는 2미터 소나무에 자의적으로 목을 매 죽을 수 있는가?
- (2) 훈련소 퇴소는 1월14일인데 자대배치를 받은 날은 1월24일까지 10일간 남현진 동지는 어디서 무엇을 하였는가?
- (3) 사건현장은 부대 바깥이다. 그런데 내무반 생활

4일만에 신병이 어떻게 근처에 상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책 2개를 넘어 사건현장인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있었는가?

(4) 91년 1월25일 내무반에서 이창호 하사(분대장)와 나눈 대화에서 "남북이 통일되면 그때 우리의 적은 누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갇들어온 신병이 어떻게 "우리의 적은 미국이다"라고 대답하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들에 대해 군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고 이 속에서 남현진 동지가 자대배치 이전에 기무사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히 동지의 군생활을 잘 알고 있는 훈련소 동기들의 증언은 이러한 의문점을 더하게 한다. 그들은 "군에서는 현진이가 전방입소 훈련을 사고없이 잘 수행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알기로 현진이는 무릎의 상처 때문에 60킬로미터 행군을 하다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중에 쓰러지게 되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현진이처럼 08(보안 및 정보요원) 주특기를 받게되면 엄격한 성분조사와 기무사 요원과의 면담을 통해 적격(?)여부가 결정됩니다"라는 동기들의 증언은 남현진 동지의 죽음에 기무사가 개입되었음을 확신하게 해준다. 다시말해 기무사가 남현진 동지의 전력을

왜 조사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기무사가 철저한 사전조사와 면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동지를 만났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기무사는 남현진 동지가 논산훈련소에서 08주특기를 받은 후 그가 재학중 총학생회 간부였음을 알았음에 틀림없다. 기무사가 그의 전력을 알았다면 조사과정에서 가해졌을 많은 물리력과, 협박, 프락치 강요 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또한 훈련기간에 쓰러지게 된 원인인 무릎상처는 조사과정에서 행해졌을 물력에 대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군입대 후 논산에서 훈련 마치고, 가족을 면회할 때 여유있고 활달했던 현진이였는데 자기 키만한 소나무에 목을 매달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에게 무슨 생각을 갖고 죽기 4시간 전에 감기약을 타먹었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혼자 먹을 수 없는 빵과 두유를 갖고 화장실도 맘대로 못가는 신병이 산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은 어떤 상위 제급자와의 약속이나 명령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건현장 검증을 마친 사람들이 제기한 의문점도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남현진 동지가 죽기 얼마전인 훈련소 퇴소 1월14일부터 자대배치 24일까지의 10일동안의 행동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실제 1월24일 이후 남현진 동지의 모습이 달라졌다고 한다. 굳은 얼굴에 마치 무슨 일이 있던 것 같다는 동료의 증언,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네가 유추 해석해야 한다"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문귀와 함께 심리적 불안이 가득한 상태의 편지내용은 뭔가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상황이 자신을 엄습하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1월5일자 발송되지 않은 편지에는 유가족에게 자신의 안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 동기생들이 사건 직후, 감금되어 나타나지 않은 일 등도 의혹을 더해주는 것이다.

송 종 호 (당시 23세)

墓 穴 장



1968년 9월8일 경북 구미에서 출생
 1987년 3월 서울대 인문대 서어서문학과 입학
 1988년 1년간 휴학. 고향 구미에서 생활
 1989년 복학. 학생회 활동
 1990년 7월19일 군입대
 1991년 2월 20일 운명

◎ 사건경위 및 의문점

포병부대에 배치된 동지는 동계훈련 기간중인 91년 2월 20일 새벽 3시에 이동식 상황실 안에서 벽면에 합판으로 목이 조인 웅크린 자세의 사체로 발견되었다고 군당국은 주장한다.

군당국은 처음 자살로 발표하였다가 이후 안전사 추정으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감상선 부위의 혈종은 질식사사기 보다는 일시적 타격에 의한 심장마비일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으며, 질식사일 경우 배변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 그런 점이 발견되지 않고 오른쪽 등에 난 상처와 등과 손, 눈가에 난 화상흔적과 몸 곳곳에 난 멍이 해명되지 않는다.

또한 함께 박스카 안에 있던 몇 명의 근무자가 밖에서 아르킬 유리창을 깨고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편지가 없어졌고, 수첩 곳곳이 찢어진 점으로 미루어 학내 활동과 관련된 타살로 추정된다.

◎ 동지를 생각하며

나는 포대 서무계 후임이다. 자대온 지 4달가량 지나고 있다. 21일 새벽, 난 상황근무 말번이었기에 잠들어 있었다.

3시 30분정도 되었을까, 전번 근무자가 나를 깨우는 것이다. 큰 사고가 났다는 얘기에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포대 CP로 달려갔다. 상황을 보니 모두 침울한 표정으로 있어 예상을 했다. 송종호 일병은 나보다 한 달 고참이다. 그의 죽음에 대해 자살이나 타살이나 사고사나 하는 분분한 의견에 대해 난 이렇게 생각한다. 자살은 아니다. 그의 군생활은 매우 모범적이었다. 고참에게는 항상 신병처럼 깎듯이 대해 주었고, 후임자들에게는 매우 자상해 난 항상 은근히 그를 존경까지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렇다고 타살은 더욱 아니라 생각한다. 이제껏 그와 다른 사람이 말다툼 한 번 한 적을 본일이 없다.

그는 분명히 운이 없어 사고로 유명을 달리 했으리라 난 생각한다. 이제 그는 여기에 없다. 자살이나 타살이나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아꼈던 이에겐 이런 모든 것이 아무 뜻없이 느껴지게만 생각된다. 그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록 중 일병 지승룡의 글>

강 경 대 (당시 20세)

墓 穴 장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71년 2월 서울 출생
 1990년 2월 서울 휘문고등학교 졸업
 1991년 3월 명지대 경제학과에 입학
 1991년 3월 22일 총학생회 진군식 시위도중 학내 진입한 전경의 직격 최루탄에 의해 안면 부상
 1991년 4월 26일 학원자주화 원전 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 투쟁 및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시위중 백골단의 쇠파이프 난타로 인해 심장막 내출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 운명
 1991년 5월 14일 장례식이 경찰에 의해 저지됨
 1991년 5월 20일 장례 치름

◎ 동지의 삶과 죽음

91년 4월24일 상명여대의 학원자주화 집회를 지지 연대를 연설하고 돌아오던 박광철 총학생회장이 불법 연행되자 명지대 학생들은 즉각적으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난사하며 진압하였고, 학생들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4월26일 '학원 자주화 원전승리와 노태우 군사정권 타도 및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경찰과 대치하던 강경대 동지는 시위자를 검거하기 위해 교내 골목까지 추입된 무자비한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의해 집단 구타당하여 내출혈로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 운명하였다. 강경대 동지는 아침에 학교에 오기전에 "어머니, 아버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일찍 돌아오겠습니다. 경대올림"이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겨두고 산화하였다.

강경대 동지의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에서 명지대 학우들과 '반미구국 투쟁 선포식'을 갖고 있던 청년학우 1천 5백여명이 연세대학교에 안치된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집결했다. 이들은 경찰의 무력 시신탈취에 대비해 세브란스 병원 주변과 정문 등 학내 곳곳에 사수대를 배치하고, 철야농성을 벌였다.

오후 9시30분 연대 총학생회장실에서는 '강경대 학우 사망관련 제 1차 기자회견'이 열렸으며, 사건개요를 일간지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이후 27일 0시10분 제 2차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전대협 임시 비상대책위'(위원장, 임헌택, 연세대 총학생회장)는 4가

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강경대 동지 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폭력, 살인정권, 노태우 정권이 퇴진할 것과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시경국장, 관할 경찰서장, 지휘중대장, 가해전경을 구속,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살인 폭력집단 전투경찰대를 즉각 해산할 것과 사전영장 제시없이 불법연행, 구속한 명지대 박광철 총학생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대협 임시대책위는 이번 폭력, 살인 사건에 대해 "현정권이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유희 살인사태'라 규정하고 폭력정권 타도투쟁을 벌여나가 이번 사태에 응징, 보답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또 제야(제도야당을 포함)와 연대하는 (가칭)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임을 밝혔다. 또 서총련은 20일 각 학교별로 동시다발 규탄집회를 가진 뒤 연세대 집결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 동지를 생각하며

1991년 4월26일 경대는 백주대낮에 무자비한 백골단에게 살해되었다. 그날 이후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윤용하, 김귀정씨등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분신과 타살이 있었다.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고, 매일 거리로 뛰쳐나와 목이 터지게 '살인정권 퇴진'을 외쳐댔다. 시민들은 그 어느때의 가두투쟁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와 호응으로

6공이래 최대의 시위인파가 몰렸다고 연일 방송과 신문은 떠들어댔다. 그러나, 우리는 연일 계속되는 투쟁으로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동지를 죽음으로 내몬 정권은 건재하고, 우리의 싸움은 여전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조차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해이해져있는 나의 모습에 깊이 반성을 한다. "식민지 조국에서의 삶은 바로 투쟁 그 자체이다."라는 말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지금, 지금의 나의 자리에서 생전에 경대가 좋아하던 노랫말처럼 '역사의 부름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다시한번 고민하게 한다.

(라미경(이화여대 민주동우회 회원), 1주기 추모집 중에서)

◎ 추모글

나의 동생 경대를 생각하며...

어제도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경대가 맛있게 밥을 먹는 꿈이었습니다. 경대는 저와 얘기도 나누고 손도 잡아 줍니다. 옛날과 같이 요즘에도 누나 걱정을 해 줍니다. 우리 경대는 하나뿐인 나의 동생이었고, 언제나 웃는 얼굴에 티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이제는 사진속에서, 나의 환상속에서 가슴 아픈 의미로 남아있는 나의 동생을 기억해 내는 것이 힘겹기만 합니다. 경대는 두달여 동안 나와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언제나 궁금한게 많이 있었고 호기심, 삶의 열정으로 가득 찬 그의 눈은 선배들에게는 채찍질이 되었고, 나에게서는 든직한 믿음을 안겨 주었습니다. 내 동생의 삶의 철학, 신념은 학생으로서 부모님의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싸우는 것이었음을 돌리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하는 토폴 강의도 빠뜨리지 않았고, 신입생이면 조금은 거리감을 느끼는 정치적 성격의 집회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였기에 사회 정치적인 신념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경대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수백만의 사람이 거리로 뛰어나와 "강경대를 살려내라"고 외쳤던 것을 저 하늘에서나마 알고 있을까요? 학원자주 완전승리와 총학생회장 구출을 위한 서부서 진격투쟁에서 연락병을 했던 나의

동생 경대! 경대는 알까요? 경대의 죽음으로 이 땅에 민주화를 알리던 수백만의 연락병이 탄생했다는 것을... 너무나 가슴 뿌듯한 내 어린 동생 경대지만 저는 때때로 홀로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경대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의 입으로 경대의 이름이 오르고 내려도 집에 돌아가면 경대없이 빈방을 볼 때 경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실감하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경대가 되살아 오지 못할 때 저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길을 압니다. 경대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현실!

경대의 죽음으로 야기된 조국의 변혁에 대한 소망들을 쟁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는 길이 동생을 빼앗긴 누나가 해야 할 마지막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함께가요! 그것은 경대를 부활시키는 길이요, 제2, 제3의 경대를 만들지 않는 살아남은 자의 숙명입니다.

<추 모 시>

오늘 우리 동지의 죽음 앞에서 약속하나 있어야겠다.

경대야 너 죽지 않았지
예 어머니 저는 죽지 않았어요
쇠파이프가 내 머리를 내리치고
각목이 내 옆구리를 작살내고
군화가 내 가슴을 짓밟아댔소 그러고도 그것들이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 날뛰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죽을 수 있겠어요
제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어둠의 한가운데서 누나와 형들이
불을 살라 제 몸을 태우고 있는데
죽음의 긴긴 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어둠의 끝을 보지 않고
어떻게 제가 폭정의 끝을 보지 않고
눈을 감고 죽을 수 있겠어요.

... 중 략 ...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습니. 우리 아들 경대는
그렇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오빠 경대는
그렇습니다. 죽지않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영균이와 기설이는
우리 오빠 창수와 세용이는
살아 숨쉬고 눈 부릅뜨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 견히고 한낮의 태양 아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서로 얼싸안고 기쁨에 넘쳐 웃는 것을 보기 위해
저 폭정의 망나니들을 때려눕히고 자유의 신천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환희에 넘쳐 춤추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 오늘 약속하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죽고도 죽지않고
살아 숨쉬고 살아 눈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경대앞에서
우리 오늘 약속하나 있어야겠습니다.
한 낮의 태양 아래서 우리가 환히 웃는 것을 보기
전에는
자유의 신천지에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고도 눈을 감지 않고 있는 동지들 앞에서
영균이 앞에서
기설이 앞에서

창수 앞에서
세용이 앞에서
이마당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 약속하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중 략 ...
단결이야말로 우리의 무기
그 앞에서 단결의 무기 앞에서
암흑가의 그림자들이 꼬리를 사리게 하겠다고
투쟁이야말로 우리의 무기
그 앞에서 투쟁의 무기 앞에서
폭정의 망나니들이 무릎을 꿇게 하겠다고
그리하여 마침내
한 낮의 태양 오월의 하늘 아래서
우리 자유의 신천지에서 경대가 우리 영균이가 우리
기설이가 우리 창수가 우리 세용이가 환하게 웃
음지으며 고허 눈 감고 잠들게 하겠다고
결코 우리 아들 우리 형제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오늘 우리 약속하나 있어야 하겠습니다. 꼭 하나 있어
야겠습니다.

김영균 (당시 21세)

墓 안동대 교내 가묘



- 1971년 서울 출생
- 1990년 3월 안동대 민속학과 입학
'민속문화 연구회'를 결성 초대회장 역임
'슬의' 교지 편집위원 활동
- 1990년 8월 조국통일 범민족대회 통일선봉대로 참가
- 1991년 4월 학원 자주화 투쟁에서 총장실 점거. 단식투쟁
- 1991년 5월 1일 '고강경대 열사 추모 및 살인폭력 규탄대회' 도중 "노태우 정권 타도, 공안 통치 분쇄"를 외치며 분신
- 1991년 5월 2일 경북대 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1년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동지가 분신 후 투쟁 중인 상황에서 언제나 희망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며 실천하던 김영균 동지는 1991년 5월 1일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살인폭력 규탄대회' 도중 "노태우 정권 타도, 공안 통치 분쇄"를 외치며 분신하였다. 분신한 후 경북대 병원에서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처절하게 투쟁하다가 5월 2일 끝내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김영균 열사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생각하며 실천하였다. 그는 미국말, 미국물건 안쓰기 등의 철저하고 결연한 운동자세로 89년 범민족 대회에서 통일선봉대원 활동 및 9월 7일 농민대회에서 문화선전대 활동을 하며, 민주화에 대한 목마름을 사랑으로 실천하려 하였다. 열사가 살아 생전 진정 이루고 싶어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자주, 민주, 통일'이다. 지금 거세게 다가오는 미노 일당의 사상공세와 분열의 음모를 박살내고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전선에서 힘차게 싸워가는 것만이 열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받아안은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살아남은 자로서 열사의 피맺힌 외침을 가슴에 담아 슬픔을 던지고 분노의 가슴을 안고 투쟁의 한길로 달려갑시다.

◎ 추모글

기념사업회 발족선언문

푸르디 푸른 하늘도 피빛으로 붉게 보이는 열사님의 원한 서린 5월, 4월의 붉은 진달래와 함께 살아오는 열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우리의 가슴은 열사의 뜻을

실현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감출수 없습니다.

열사님의 순결한 민족해방, 조국통일의 염원이 있기에 새조국 건설을 위해 투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 생전 은뎀으로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던 김영균 열사님.

열사의 뜻을 이어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에 열사님의 해맑은 미소가 넘실거리는 통일조국이 한달음에 달려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열사님의 고귀한 염원을 가식된 지성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청년의 맥박속에 녹여내려는 산자들의 큰 함성을 하나로 이어, 도도한 역사의 흐름앞에 너무나도 자랑스런 반미구국 김영균열사 추모사업회 건설준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합니다.

미친 듯이 몰아쳤던 탄압의 칼바람을 뚫고 들뜬에 흐드러진 들풀처럼 역세게 일어나 동지의 숭고한 뜻을 짓밟으려는 무리들을 물리친 우리 모두의 가슴에는 꿈틀거리는 뜨거운 조국사랑이 있습니다. 빛나는 청춘이 있기에 조국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어 열사의 의지를 가슴에 안고 달려가는 우리의 대오는 필승불패입니다. 역사에 길이 빛날 김영균열사의 반미구국 정신을 7천만 겨레의 가슴에 선명히 새기고자 하는 우리에게 진군의 기쁨과 승리를 향한 확신이 시린 가슴에 사무치게 파고 듭니다.

반미구국의 투혼으로 식민지 청년의 가슴에 살아오는 열사와 함께 거침없이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전선으로 질주하라!

열사님이 산화하신지 1년 5월 2일
반미구국 김영균 열사 추모사업회 건국위

천세용 (당시 20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71년 서울 출생
- 1990년 동북고 졸업
- 1990년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입학
- 1990년 민족사 연구회 '1 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 1990년 전자계산학과 사회부장
- 1991년 5월 3일 오후 3시경 '강경대학우 폭력살인 자행한 노태우정권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 도중 분신후 투신하여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주경야독을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천세용 동지는 '한일' 만평기자 및 못다한 미술학도의 꿈을 '한일 민족사 연구회'를 통해 이땅의 현실을 고민하게 되었고, "과학은 본질적으로 실천적이므로 의식과 실천은 변증법적으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확신을 변혁운동을 통해 담보해 내려는 노력을 펼쳐 나가다 5월 3일 침체된 학원자주화 투쟁에 불을 당기고자 했다. 동지는 당일 국기 게양대 앞에서 "6천 경원대 단결투쟁 노태우정권 타도하자."고 외치며 분신, 투신하여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나의 세용이"

우리를 가장 두려워하는 적의 손에 달려가 지금은 치열히 싸우고 있을 한 선배의 말이 생각난다. 자신은 목숨을 할 때 항상 세용이가 허리춤에 불을 붙이던 그 순간을 생각한다. 우리는 널 슬픈 감상적 추억으로 떠올리지 않는다. 널 떠올릴 때 마다 우리의 투쟁의 힘은 계속 커져만 가고 민중사랑의 가슴은 두터워져만 간다. 너의 분노, 투쟁의 칼을 들고 내달리는 동지의 승리를 향한 발걸음은 힘차기만 하다. 식민의 하늘, 땅,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동지의 웃음소리가 조국통일된 해방조국의 땅에 울려 퍼질 그날은 멀지 않

음이 보이는구나.

내가 그토록 염원했던 민중의 나라에서 민족사 연구회 '한일' 동지가

◎ 유고글

<유 서>

학우들이여, 이제는 봅시다.

우리와 같은 학우들이 쇠파이프에 맞아 죽고 꽃다운 청춘을 불사르는 동안 우리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독점 자본가들이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형제들을 착취·수탈하고, 저항이 있는 곳마다 광폭한 탄압을 휘두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노태우 정권과 독점 자본가들이 1천만 노동자와 4천만 민중 형제들을 착취·수탈하고, 저항이 있는 곳마다 광폭한 탄압을 휘두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떨쳐 일어납시다. 슬픔과 분노를 그 자체로 끝낼 것이 아니라, 현 정치권력에 맞서 정면 투쟁, 정면 돌파해 나갑시다.

많은 할 일들이 남아있지만 민중의 손으로 노태우 살인정권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하는 날까지 힘차게 투쟁합시다.

◎ 추모글

(시)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꽃이 핀다.

오월의 피먹은 꽃들이

철쭉꽃 자꾸 붉어지는 이 오월 꽃잎이 떨어지고 있다.

불꽃이 타오른다.

붉은 광장 진리관 테라스에서 신나처럼 번지는

한 점 불꽃,

깃발이 펄럭인다.

비명같은 절규가 사라지기도 전에 열 아홉살 짧은

생애의 불꽃이 떨어진다.

그대 타는구나.

손톱 발톱 할 것 없이

그대 곱던 얼굴, 머리칼이 타는구나.

그대 입속으로 불길, 그대 온 몸을 녹이는구나

벗들의 외마디 비명소리 눈물섞인 울음소리

그대 온 몸 불꽃으로 타는구나

오, 벗이여 동지여

그대 불꽃으로 가려는가

죽음으로 무엇을 말하려는가

바람 많은 이 땅

바람 많아 할 일 많은 식민의 땅에서

그대 온 몸 까만 숯덩이로 무엇을 말하려는가

일어나 말하라

사랑하는 벗이여 동지여

일어나 같이 싸우자 췌블대 나의 동지여

저 파쇼의 쇠파이프 난무하는 거리에서

진달래꽃 점점이 타오르는 화염병의 불꽃 안고

그대 이끌거리는 가슴안고 돌아오라

나의 사랑 나의 동지 천세용 열사여

나는 오늘 이 자리

그대 불탄 이 자리에 섰다

동지들이여 들리는가

정면투쟁 정면돌파

산맥의 눈부신 목소리를

동지들이여 보이는가

산천초목 들끓는 민중의 합성 소리를

가자 동지들이여 해방의 땅으로

이제 투쟁이다

이제 복수다

박 승 회 (당시 20세)



1971년

전남 목포 출생

1990년 2월

목포 정명 여고 졸업

1990년 3월

전남대 식품영양학과 입학. 단대 학생회 활동

1991년 4월 29일

전남대에서 '고 강경대 열사 추모 및 노태우정권 퇴진 결의대회' 중 "노태우 정권 타도하고 미국놈들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분신

1991년 5월 19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박승회 동지는 고교 재학 중 학생회장에 출마하였고, 전교조와 관련해 사회문제에 일찍 눈을 뚫으며, 대학생활동도 더욱 더 진지한 모습으로 운동을 고민해왔다. 분신 전날 4월28일 목포 집에 가서 부모님을 끌어 안고 "가족들을 사랑한다"하며 해후하였다. 분신 당일 날 "2만 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물어 달라. 항상 함께 있고 싶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후, 한 때 몸의 상태가 호전되자 손가락으로 '노정권 타도, 미국놈들 몰아내자'는 표현을 힘겹게 쓰기도 하며, 강인한 투혼을 보이다가 끝내 강경대 동지의 운구가 광주에 도착할 때인 5월19일 운명하였다. 5월25일 광주시민들의 애도속에 광주망월동 묘지에 영원한 반미구국전사로 잠들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짧은 커트에 안경을 쓰고 목포 출신답게 목포의 눈물을 구성지게 부르던, 가만히 눈을 감고 입을 열어 손가락으로 장단을 맞추던 승회가, 친구들에게 색화선지를 곱게 붙여 봉투와 편지지를 만들고, 샴푸와 린스에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다고 비누로 머리를 감고 마지막 행굴 때 식초 두세방울을 풀어 행구라고 가르쳐주던, 하이타이드 풍풍도 콜라도 손 안대던 작은 애국자, 청소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편집실 식구, 친구들을 많이 생각하던 평범하고, 정 많았던 한 여대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생이 신나를 사고, 유서를 쓰고, 제 몸에 불을 지르게 되기까지 이땅에서는 과연 무슨일이 일어났 것인가?

◎ 추모글

(편 지)

보고싶은 승희에게

들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어서 빨리 이 편지가 도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렇게 쓴다. 우선 내 이야기부터 하마.

지난 4월19일부터 시작했던 단식은 13일만인 어제 끝내고, 어제 저녁부터 죽을 먹기 시작했단다. 체중만 7kg정도 빠졌을 뿐 여기 근무하는 분들이 나처럼 단식 잘버티는 사람 처음 본다며 저녁에 흑시 몰래 뭐 먹지 않느냐고 할 정도로 건강하단다.

원래 더 오래할 계획이었고, 몸상태로 보아 지속할 수 있었지만 너를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먹었다. 비록 간헐적이지만 나도 열심히 싸워야하고 그러려면 밥을 먹어야 하지 않겠니? 잘했지? 오로지 신문과 접견을 통해서만 그것도 하루씩 늦게 소식을 접하니 초조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구나. 당장이라도 달려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심정 뿐이다.

승희야! 부모님이 너무 의연하시단다.

미어지는 심정이야 오죽하시겠느냐마는 너를 이렇게 만든 것은 독재정권이며 우리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다 하는구나. 이곳에서 부모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걱정이었는가를, 그리고 부모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은희가 우리 승회를 잘 보살펴 주리라 믿는다.

승희야! 어제 신문을 보니 그 넓은 도서관 앞 잔디밭에 온통 우리 학우들로 가득차 있더구나. 비록 사진으로만이지만 지금까지 우리학교 집회사상 가장 많은 숫자가 아닐까 생각되는구나. 어디 그뿐이니, 이젠 교수님들까지 모두 성명서를 내고 가정대 교수님은 농성까지 들어가셨단다. 들리는 소식에 시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은 내 글로는 표현하기 힘들구나. 백만학도 모두가 그러하지만 나도 우리 승회가 한없이 장하고 자랑스럽단다.

사랑하는 승희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나눠 갖지 못하니 오로지 너 혼자 고스란히 감내해야만 한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승희야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의 아들로 잘 키우기로 약속했던 후배들이 너를 기다리고,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로 한 용봉 23호가 너를 기다린다.

은희야! 참으로 고생이 많구나. 네가 옆에 있기에 무척 안심이다. 마치 내가 있는 양 말이다. 간호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고생이란다. 끼니 거르지 말고 건강해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결코 다른 맘 먹어서는 안된다. 편집실 후배들이 다른 맘 먹지 않을까 제일 걱정이다. 건이나 미경이가 가능하면 후배들에게 붙어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련히 알아서 잘하라면은 요즘 내 심정이 이렇단다. 우린 모질고 악착같이 살아 남아야 한다. 다시 한 번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먹길 당부하며 이만 줄인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니? 어떤 고통에도 결코 약해지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하자. 그리고 승리의 그날 함께 평평 울기로 나와 약속하자.

보고 싶은 승희야! 승희의 어떤 모습이라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단다. 또 소식 전하마.

1991. 5. 2. 송갑석

◎ 유고글

<유 서 1>

사랑하는 내 친구들이아

나는 항상 너희들이 자랑스러웠다. 옆에서 아무리 우리를 흉봐도 그들이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알았고, 시새움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더 한층 너희가 자랑스러웠다.

슬퍼하며 울고 있지만은 말아라. 그것은 너희들이 해야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가슴에 불을 품고 싸워야 하리.

적들에 대한 증오와 불타는 적개심으로 전선의 맨앞에 나서서 투쟁해야 하리. 그 싸움이 네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2만 학우 한명 한명의 손을 잡고 하는, 함께 하는 싸움이어야 하리.

내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니 힘들고 괴롭더라도 나를 생각하며 힘차게 진전하라.

*내 서랍에 코스모스 씨가 있으니 2만 학우가 잘 다니는 곳에 심어주라. 항상 함께 하고 싶다.

통일전군 47. 4. 27 승희

<유 서 2>

사랑하는 용·편 식구들에게

이 시대에 우리는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열사는 필요없고 전사가 필요한 때다.

이 두마디 말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아 열심히 싸우지 못하고 먼저 떠남을 그 어떤 말로도 사죄를 구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제 길이 2만 학우 한명 한명에게 반미의식을 심어주고, 정권타도에 함께 힘썼으면 하는 마음에 과감히 떠납니다. 불감증의 시대라고도 하고, 무관심의 시대라고도 하는, 지금 명치대 학우의 죽음에 약간의 슬픔과 연민을 가지다가 다시 제 자리로 안주해 커피를 마시고 콜라를 마시는 2만 학우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적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이라고하지만 궁지에 몰린 적들은 앞으로 어떤 탄압을 해올지 짐작이 잡니다. 이 싸움은 쪽수 싸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2만학우의 손을 차례차례 잡고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편집실의 해야할 일이 많은데 다하지 못하고 남겨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지영이, 용미, 수미, 기현, 인식이 이 일로 충격받고 우리의 길을 함께 하지 않고 옆길로 섰까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91수습위원 아이들아, 나를 대신해 내 뭇까지 편집실의 주인으로서 힘차게 살아가라. 꼭.

학기야, 너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 외롭고 쓸쓸하겠지만 열심히 생활하고, 또 바로 90이 들어오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줬으면 한다. 무덤가의 산제 비꽃처럼.

선배님들 죄송합니다. 선배들께 힘 되어주는 후배는 못되었던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만 지워드리고 떠나는 것 같지만 - 올해 일정을 흐트러 놓을 수도 있고, 마음을 아프게 해주는 - 살아남은 자의 의무를 다 해주십시오.

먼저 잡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통일전군 47. 4. 27 승희

김 귀 정 (당시 2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66년 서울 출생
- 1985년 무학여고 졸업
- 1988년 성균관대 불어불문학과 입학
심산연구회 가입 활동
- 1989년 심산연구회 회장
동아리 연합회 총무부장
- 1991년 5월 25일 제4차 국민대회에 참가했다가 대한극장 부근에서 경찰의 폭력적 강제진압에 의해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노점상으로 어려운 생활을 꾸려나가는 가족의 현실 속에서 악착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대학 입학후 "심산연구회" 활동을 통해 조국과 민중을 고민하는 책임 있는 운동가로 삶을 실천하던중 아버님을 여의게 됐다. 그렇지만 동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운동은 이름만 변하면 그 삶까지 단숨에 변하는 논리가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신념"이라며 후배 및 동료들의 생활에 건강함을 불어 넣었다. 항상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미제와 파쇼에 대한 적개심이 부족한 점을 경계하면서 투쟁하던 중 25일 제4차 국민대회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진압작전에 포위되어 질식할 듯한 최루탄과 백골단의 폭력에 의해 운명하였다. 그러나 강제 부검 결과 사인을 밝히지 못한채 6월12일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 동지를 생각하며

분노의 칼을 갈아야 한다.
민족성대가 백만청년학도에게 드리는 투쟁 호소문

열사를 보내는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우리의 두 눈을 또다시 눈물로 적실 수 밖에 없음에 우리는 분노를 느낀다. 얼마나 많은 학우들과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죽어 갔던가!

채 1달도 되기 전에 13명이 자신의 몸에 신나를 끼

었고 불을 당겼다.

— 중 략 —

이땅은 민주를 원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죽음을张口해야 하는 사회.

과잉진압에서 폭력진압으로, 폭력진압에서 살인진압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초강경 총리에서 강경 총리로...

공안내각에서 또 다른 공안 내각으로...

살인통치의 실질적인 주역인 안기부는 그대로 존속하고 평화적인 시위를 탄압하는 집시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백골단은 아직도 거리의 무법자로 남아있다.

— 중 략 —

분노의 칼을 갈아야 한다.

귀정이를 죽인 놈들에게 우리는 분노의 칼을 똑바로 겨누어야 한다. 귀정이의 죽음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다. 갈곳 없이 독 안에 가두어 놓은 채, 20명의 시위대에 100여명의 백골단과 전경.

그들은 살인의 유희를 즐겼다. 쓰러진 시위대의 얼굴 바로 앞에 사과탄을 던지며, 쓰러진 시위대의 온몸을 방패와 군화발로 찍고 밟으며, 1,000명이 20명을 상대로 유희를 즐겼다.

귀정이는 공안통치의 칼바람속에서 쓰러질 수 밖에 없는 바로 나 자신, 우리의 일부인 것이다.

우리는 거리로 나아가야 한다.

슬픔은 분노로 되살아나야 하며, 분노는 칼날이 되어 솟구쳐야 한다. 그리하여 환한 웃음이, 진정 귀정이의 환한 웃음이 서글픔으로 바뀌지 않도록, 영원한 웃음일 수 있도록 우리는 거리로 달려나가야 한다.

◎ 동유고글

(월 7)

89년 1월 15일

어제 명동성당에서의 추위와 배고픔 덕분에 피로가 채 가지지 않은 몸으로 이곳 저곳 돌아다녔다.

1월14일은 박종철열사의 2주기였다.

금잔디에서 간단한 출정식을 마치고 명동성당에 가서 분향소 앞에서 묵념도 하고, 집회장소였던 문화관 강당이 좁아 밖에서 떨며 거의 3시간 정도 앉아있었던 것 같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모였다. 나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 계기였던 것 같다. 파쇼의 잔인한 고문으로 끝내 꽃다운 나이에 삶을 마쳐야 했던 열사의 억울함을 애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열사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도록 노력하여야겠다.

91년 4월 2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슬픈 것은 나는 아니,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만큼 노태우와 미제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작은 일에 흥분을 잘한다. 그렇지만 6공 최대의 비리가 폭로되고,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기만적인 지자체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라고 눈 한번 크게 뜨고는 그만이었다. 산동네 오두막에 방한칸 빌려 살던 우리의 민중들이 강제 철거를 당해 거리로 나왔을 때, 우리는 불쌍하다 동정의 눈길 한번 주고는 그만이었다.

우리의 주먹과 힘들을 너무 헤프게 낭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좀더 중요하고 의로운 일에 우리의 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 같다.

심산 동우회가 있을 날 저녁에

나는 혁명성이나 투철한 사고방식, 해박한 지식도

없었고, 그냥 심산이 좋아서, 선배가 좋아서 올라오기 시작했고, 마칠 때까지 그래왔다. 그렇게 생활하다보니 나의 동아리 생활은 시한부를 내 머리속에 그어놓고, 그 선을 넘을까봐 가슴 조여하며, 불안해하며 보냈다. 그렇게 생활해서인지 지금까지 있을때만이라도 열심히 할 것, 만약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의 난..., 하고 스스로 자문해 본다. 후배, 동료, 선배 모두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살아라. 나도 지금의 내 생활영역 속에는 지난 날의 과오를 다시 한번 저지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유고글

(시)

그리움은 잠들지 않는다

나는 이제 귀정에게도 그리움을 주겠다
죽음보다 더 소중했던 그리움을 주겠다
백병원에서 슬픔을 견안고 너의 시신에서
참혹함의 핏줄을 목울대로 외치던 젊은벗들의
대장정이 그리움이었음을 나는 이제 귀정에게도
그리움의 뼈아픔을 주겠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걸을 권리를 주겠다 청속죽죽 가슴 시퍼런 들녘의
꿈을 주겠다 웃음많은 이들의 가슴에 남은 아픔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이다 이 땅에 맺혀있는
백두대간 청천벽력의 기다림이다 나는 이제
네 스스로 너의 죽음보다 더 소중했던 그리움을
주겠다
손에 닿는 것은 그리워하지 않는다 다시 피어날
수 없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꽃들을 위해 소낙비는 평생을
그리움에 실은 얼굴로 하늘하늘 부서져내리고
치절하게 혼자 버려진 곳에서도 낙엽은 쌓이고
서슬눈은 그리움에 어깨부터 갈라져 제 스스로 몸을
빠개썩인다 나는 이제 귀정에게도 새벽별도 달빛도
꽃이파리도 아닌 그리움을 주겠다 머물 수 없는
생명의 박동 슬픔보다 더 소중한 그리움을 주겠다
산자들의 실핏줄에서 청청타는 목메임을 생골을
까주듯

나누어주겠다 그리움을.

너의 소원이던 사람은 통일세상 그 그리움을
너에게도 주겠다 네 스스로 너의 죽음보다 더 소중
했던
그리움을 나는 이제 너에게도 주겠다 마냥 기다리
지만 않는
끝내 가슴에 살아 이 세상을 걸어갈 발자국을 주겠
다
그리움의 힘에 대해 얘기하는 벗들과 함께 너에게
도
웃음의 평등함을 주겠다 슬픔보다 더 투명한 삶의
무게
그리움을 나는 이제 귀정이에게도 나누어주겠다
그리움에 목젓 타 내 몫의 삶을 다 살기전에는
이 땅에 먼저 잠들지 말라 벗들과 그리움을 나누어
갖기전에는
이제는 짧은 꽃들이 오월 하늘이 떨어진 그리움에
취해
미친 듯 함께 웃는 평등함을 나누기전에는 슬픔아
참혹함아 지쳐 쓰러짐아 발등에서부터 그리움을 살
라먹고
잠들 수 없도록 웃으며 가자 죽은 자가 산자에게
내린 축복으로
웃으며 가자 그리고 나는 이제 죽음보다 더 소중한
그리움을
슬픔보다 더 해맑은 그리움을 귀정이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당시의 진술

“사람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여 계속 정지한 상태
에서 밀리기만 하였고 그 위로 사과탄이 계속 터지고,
뒤에서는 백골단이 포위한 채 사람들을 구타하면서 한
명 한명 끌어내기 시작했다. 나는 끌려나와서 도로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고향소리
(비명소리)와 사과탄 터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백
골단이 옆에서 밀면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주
먹·몽둥이로 때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앞으
로 백골단이 보이면서 머리 옆에서는 사과탄 등이 터
지는 ‘탁’ ‘탁’ 소리가 십여번 빗발치고 파편튀는 소리
가 옆으로 나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은 밀리는 와중에 발이 끼어 운동화도 벗은 채
있는데 2, 30여명의 백골단이 에워싸고 있는 모양이 보
이면서 “무릎 꿇어” “이 새끼가 고개를 어디서 들어”하
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주위에는 여학생들이 다수
있었는데 “사람 죽어요” “살려 주세요”하는 소리가 울
먹이는 소리와 함께 계속 들렸으나 “씨팔년아 가만 있
어”하는 폭언을 계속할 뿐이었고 “제발 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사람 죽어요”해도 일어난 사람들은 계속 몽둥
이로 때리며 “무릎을 꿇어”라고 하기만 할 뿐 4, 5절으
로 깔리고, 밑에 사람이 깔려 누워 있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재모

김철수 (당시 18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1973년 3월

전남 보성 출생

1989년 3월

보성고 입학

1991년 5월 18일

보성고 운동장에서 '노태우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

1991년 6월 1일

전남대 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1년 5월18일 보성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회
주최로 5.18 기념 행사를 치렀다. 당시 3학년이 재학중
이던 김철수 동지는 운동장에서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했다. 온몸에 불을 붙인 채 행사장으로 달
려가면서 친구들에게 “잘못된 교육을 계속 받을래?”라
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기는 도중에는 ‘우
리의 소원’을 친구들에게 불러달라고 하였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김철수 동지는 “박승희 분신 이후 죽음을
각오했다. 우리나라 전 고등학교가 인간적인 학교가 되
었으면 좋겠다. 이제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투쟁
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썼으나 분신중 불탄 것으
로 보인다. 김철수 동지는 친구들의 간절한 소망을 접
고 분신 2주만에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승희 학형의 분신에 우리는 많은 것을 느꼈고 내
스스로도 투쟁의 열기로 딱 차있었다고. 노태우 퇴진의
열기로 우리의 가슴에 딱 차 있었다고.

그러나 너의 눈에는 철수 너의 눈에는 우리의 열기
가 우리의 노태우 퇴진의 외침이 부족하게 느꼈는지
우리의 가슴에 노태우 퇴진의 부족한 마음 한 구석을
채워주려 또 다시 너는 분신했구나.

이젠 됐다. 우리의 가슴은 이제 노태우 퇴진의 열기
가 충분하다 못해 터질 정도로 충분하다. 부디 일어나

라. 깨어라.

<친구들의 병상일지 중에서>

◎ 유고글

<유 서>

..... 왜 죽은지 너희들은 알아야 한다. 친구들이
12년이란 긴 세월 목이 매어 우리 쇠사슬에
취꼬리만한 명예와 권력을 위해 공부벌레가 되어 주길
바라는 기성세대 및 벌건 대낮에 강경대 동지가 백골
단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져도 심장이 터질듯한 분
노의 가슴을 잃어버린 우리, 배움의 학도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분신헌장에서 타다 남은 종이중에서>

한 낮에 경찰 쇠파이프에 대학생이 맞아 죽고 또한
그에 이어 피 끓는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죽었
다. 또다시 우리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몸을 불태
워가며 죽어간다면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선생님, 과연
우리들이 우리들의 배움을 우리들의 학문을 올바르게
자기보다는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가르
쳤습니까? 현 교육정책이 과연 어떻게 민주주의를 싹
틀 수 있었습니까? 학생들은 배움을 남용하지 말고 고
통 받는 자, 민중을 위해 쓰기 바란다.

<분신헌장 동지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젊은 학도들에게
고하는글」中「우리들의 결의」中>

◎ 추모글

<글>

성숙한 비판의식, 진정한 애국자

철수의 삶은 막연히 윤리교과서를 그대로 따르는 모범이 아니었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인간된 삶을 자주적으로 추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학교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이 독재권력이 물러나지 않고는 결코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 수 없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부모님에게 납부금을 받아오는 것을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느날 친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부모님에게 납부금을 받

아오는 것이 너무도 미안하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 배만 불리는 것이냐"

철수는 그나마 또래가 가지고 있을 법한 낭만적인 애국심도, 정치적인 패배도 아닌 뼈저린 농촌 현실과 민중의 삶, 그리고 자신이 받는 제도교육도 곧 이런 불평등을 가일층 심화시키는데 구조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 생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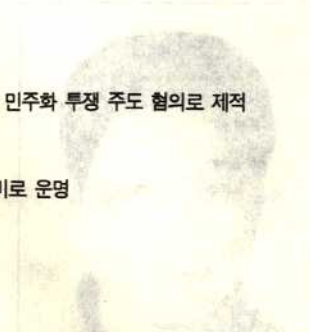
항상 시국을 염려하고 통일된 세상,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자주 민주국가를 염원하던 철수는 그토록 치열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다 해방된 구국의 내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고 재 욱 (당시 21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70년 7월 1일 서울 출생
- 1989년 경문고등학교 졸업
- 1990년 총학생회 사회부장 역임, 학내 민주화 투쟁 주도 혐의로 제적
- 1991년 영등포 구치소에서 출소
- 1991년 8월 3일 수련회 도중 기평에서 심장마비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총학생회 사회부장으로 역임시 학교측의 기만적인 태도에 혈서를 쓴 후 상처가 깊어 병원에서 치료중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었다가 9명의 동지들과 함께 구속되었다. 고재욱 동지는 출소한 이후에도 복적 투쟁의 선봉에서 싸우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련회 도중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류 정 하 (당시 25세)

墓 마석 모란공원 민주 열사 묘역



- 1966년 4월 11일 전남 고흥 출생
- 1986년 신구전문대 원예과 입학
- 1990년 총학생회 총무부장 역임. 학내 민주화 투쟁 주도 혐의로 제적
- 1990년 4월 학내 민주화, 자주화 투쟁 주도 학교측의 기만적 태도에 협서와 삭발로 항의 학원민주화, 자주화 투쟁중 학교측의 일방적 결정으로 제적
- 1990년 5월 13일 학내 침탈로 구속
- 1990년 12월 영등포 구치소에서 출소
- 1991년 8월 3일 수련회 도중 가평에서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가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류정하 동지는 총학생회 총무부장으로 역임시 학교측의 기만적 태도에 협서와 삭발로 항의, 학내민주화 투쟁을 주도하다 학교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제적당하였다. 그리고 학내 백골단의 새벽 침탈로 9명의 동지들과 함께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류정하 동지는 수련회 도중 고재욱 동지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심장마비로 운명하여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 유고글

〈글 1〉

이땅 한반도에 태어난 젊은이여.

우리 조국의 현실을 한번쯤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나도 하찮은 인간이지만 나와 같은 인간들끼리 함께 같이 동등한 삶을 살고 싶다. 왜 나만은 외롭고 비굴하지 않은가.

죽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끔찍한 나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의 괴로운 현실, 그리고 희망찬 미래 뒤에는 두렵고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노라.

이땅 한반도의 젊은이여, 삶이여.

당신은 얼마만큼 현실을 올바르게 보고자 하고, 당신 그대 젊음을 삶을 떳떳이 전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숨은 오직 하나지만 이땅 한반도를 지켜갈 목숨은 수없이 많습니다.

현실 남한 사회구조를 거부하는 애국청년학도여.

떨쳐 일어나 모순을 깨부시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젊음 이요. 삶을 전제하는 너와 나의 양심입니다. 나 류정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나 류정하, 정의와 참진리를 위하여 목숨바쳐 투쟁하리라. 혹자는 어리석은 영웅심리라고, 그대 혹자여, 그대의 참 일 어섬을 위하여 하찮은 이 한 목숨을 바치노라. 그대 혹자들이여, 한번쯤 신중히 생각해보라.

그대의 삶과 사랑, 행복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삶, 사랑, 행복이 중요함을 이 쓸모없이 죽어간 류정하에게도 나의 소중하고 또, 또 소중한 어머니가 있었고 아버지, 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랑스런 나의 동지가 있으며, 어려웠던 나의 전우들이 가슴 아파할 나의 죽음이지만 그대들이여 서글퍼 마오. 하찮은 나의 젊음은 값어도 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되도록 그대 젊음이여. 삶이여. 한번쯤 생각하고 한번쯤 고민하고 또한 한번쯤 실천하는 삶이었으면 합니다.

〈글 2〉

밤을 새며 비를 맞으며

고민과 생각을 해봐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때를 기다려 사나이답게 죽자

너무 과대하게 확대하려 하지 말고

진정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자

나처럼 비굴하고 못한 바보는 죽음을 기다리듯...

손 석 용 (당시 21세)

墓



- 1970년 경북 영덕 출생
- 1989년 대구 대륜고 졸업
- 1989년 대구대 사범대 특수학과 입학
- 1991년 3월 군입대
- 1991년 8월 18일 밤 11시40분경 대구대 대명동 캠퍼스 야간강좌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
- 1991년 8월 19일 새벽 5시경 대구 동산 병원에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특수교육학과 학도로서 장애자들과 함께 할 꿈을 소중히 키워왔던 손석용 동지는 민족민주운동에도 뜻을 같이 하다가 3학년 초에 군에 입대하였다. 평소 미제와 미제의 용병 역할을 하는 군을 혐오해 왔던 동지는 군에서도 동료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고민하였다. 동지는 범민족대회가 열린던 기간인 8월14일 첫 휴가를 나와서 8월18일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모교인 대구대학교 대명동 캠퍼스 야간강좌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하여 끝내 마지막 길을 택했다. 그 후 동료 학생들과 수위에 의해 발견되었고, 19일 새벽 5시 운명하였다. 운명 즉시 대경총련 산하의 학생들과 지역 민주인사들이 영안실에 집결하여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12시 15분경 국군 기무사의 지휘를 받는 백골단과 전경 2개 중대의 침탈에 의해 시신을 탈취당하여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고, 놈들은 유가족을 회유하여 가족장으로 치루어 버렸다.

◎ 유고글

〈유서〉

이젠 떠남을 기다리며 나의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한을 달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수 많았던 기쁨이 또 기다림에 익숙했던 고민이 나를 둘러쌌던 모든 삶이 잊혀집니다. 갈라져서 외로웠던, 사랑한 모든 사람이

잊혀집니다. 갈라져서 외로웠던 사랑한 조국이 서러웠습니다. 미제의 시퍼런 침략의 총칼이 미웠으며, 독재의 억압과 착취가 또한 미웠습니다.

아니, 무엇보다도 서러웠던 것, 양키 용병을 거부하며 장렬하게 죽어갔던 어느 선배열사의 다짐이 나를 부끄럽게 했으며, 그를 동조했으면서도 양키 용병에 응했던 나 자신이 미웠습니다. 하나되길 원하는 한반도의 서러운 분단이 더욱 서러운 오늘, 난 이어져 진정한 자유로운 통일조국의 첫 아침을 생각해 봅니다. 늘, 꿈속에서나마 볼 수 있다면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았던 내 조국의 통일을 볼 수 없음이 많이 애달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마 추운 겨울이었나 봅니다.

통일조국의 새아침을 다짐하며 진정한 미제 축출의 그날을 다짐하며 공책 한 구석에 휘갈긴 부끄러운 '나의 다짐'이란 글이 생각납니다.

나의 다짐

"나는 식민지 반도 남녘 청년학도로서

독재의 억압과 착취를 분쇄하고

이제의 시퍼런 침략의 총칼을 뚫고

조국의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까지

민족해방 전선의 투사로 살아갈 것을

7천만 민중앞에 엄숙히 다짐합니다.진정 하루도 거르지 않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한 줌의 재로밖에 변할 수 없음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허나, 결코 헛된 다짐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었

기에 비록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 전 한 줌의 재로 변해있다 할지라도, 도망치듯 내 삶의 종지부를 찍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표현하기조차 벅칩니다.

비록 지금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만 통일되는 그날 해방되는 그날 수많은 선배열사들과 여러분과 함께 통일과 해방의 기쁨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이 메아리 칠 수 있는 그날, 백두에서 하나되어 통일의 노래 울려 퍼지는 그날, 모든 이들의 가슴에 진정한 shalom이 숨쉬는 그날을 위해 "나의 다짐"을 되뇌어 주십시오. 그리고 '직녀에게'를 힘차게 불러 주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했기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던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그리고 해방을 사랑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미제의 마음일 수 없음을 이 글을 통해 다시 부르짖어 보며 확인해 봅니다. 그렇기에 노예로 사느니 죽음을 택했으며, 더 이상 민족의 겨레의 가슴에 총부리를 거눌 수 없기에 이길을 택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저와 같은 어리석음이 이 땅위에 존재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죄악과 배신이란 단어로 표현될 뿐이니까요.

슬픔이요, 곧 죽음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가슴에 참 조국 사랑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조국이 있고, 그 조국의 통일과 완전

한 해방을 원하신다면, 자! 이제 일어나십시오. 조국의 통일은 해방은 누가 가져다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참다운 하나됨과 해방됨은 바라만 보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순결한 어머니의 땅을 보듬고 어루만질 때 보로소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이 땅 한반도의 해방에 작은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헛된 죽음이 아니길...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의 편입니다. 열심히들 투쟁하십시오. 여러분과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내 조국 한반도의 동일과 진정한 해방을 염원할 것입니다.

통일염원 47년 8월 18일
손석용 드림

〈덧붙임〉

어머니! 자식이 먼저 간 석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노여워도 마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자식은 굳건히 조국을 위해 살았으며, 조국을 위해 죽어 갔으며, 끝까지 조국의 아들이 되길 원했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문 승 필 (당시 19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73년 4월 출생
- 1990년 3월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입학 동아리 YMCA활동 시작
- 1990년 6월 그레그 체포결사대로 미문화원 진격 투쟁 시 연행, 훈방
- 1991년 6월 "폭력만행 민생파탄주범 노태우정권 퇴진 및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국민대회" 시위 도중 연행 구속
- 1991년 8월 집행유예로 출소
- 1991년 2월 YMCA활동시작
- 1991년 7월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한 이후 경찰로부터 지속적인 전화협박 받음
- 1991년 10월 14일 밤12시 동아리 선배를 만난 이후 귀가중 행방불명
- 1991년 11월 2일 광주 보훈병원 영안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경찰은 단순 열차사고로 처리함

◎ 동지의 삶과 죽음

(1) 7월26일 부친상 이후 행방불명(10월15일)전까지 경찰서에서 계속 전화음.

① 어머니가 한 번 받았는데 보안과라고 함.→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고 함.

② 문승필 동지가 3~4회에 걸쳐 전화 이야기를 함.→몹시 괴로워 함.

③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전화를 받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제발 좀 괴롭히지 좀말라' 고 애원했다고 함.

④ 10.15일 이후 연락이 없었음.

(2) 10월14일~15일 행적

① 아침 7시30분에 어머니가 담양 방직 공장 출근 시 깨어나 인사함.

② 저녁 8시경에 집으로 전화와 '조금 늦겠다'고 함.

③ 선배 1명과 후배 2명과 만나고 밤늦게까지 화공과 학생회실에 함께 있음.

④ 선배와 학교를 나와 북구청 앞에서 11시50분경에 헤어짐.

⑤ 15일 0시30분경 농장다리에서 근처 아줌마가 철로 근처에 키 큰 청년이 앉아서 담배피는 장면을 보고

수상히 여겨 다른 아줌마와 함께 '위험한 장소니 빨리 피하자'고 했으나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보이지 않음.(목격자인 아줌마의 진술)

15일 0시55분 그 장소에서 기차 사고가 남.

11월2일 문승필 동지의 사망소식이 집에 전달됨.

〈경찰측 주장〉

15일 0시55분경 농장다리에서 문승필 동지가 기차에 갑자기 뛰어들어 자살을 했다. 그 이후 시신을 광주 보훈병원으로 옮겼고 신원확인이 잘 안되어서 17일만에야 파악하고 11월2일 집에 연락하였다.

◎ 의문점

① 시계, 라이터, 담배(2-3개피), 전화카드, 현금1000원, OMR카드가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유품이 너무 깨끗한 점.

② 기차에 치어 죽었는데 시신의 외상이 너무 적고, 안경이 왼쪽알만 금이 간채 별 손상이 없는 점.

③ OMR카드에 주소가 적어져 있었는데 OMR카드를 11월2일에야 발견한 점.

④ 신원파악 과정을 2명의 형사가 달리 이야기 한 점.

- 강력계 형사: 지문 채취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

도 안 나타나 서울 경찰청에서 확인했다.

- 담당형사: OMR카드(11월2일 발견)

⑤ 유서가 없는 점.

⑥ 선배, 후배의 만남이나 어머니와 생활에서 자살 기미를 전혀 못 느낀 점. "아니야, 절대 우리 얘기는 그럴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누가 죽여 놓고 갖다 놓았을 거야. 학생, 제발 우리 승필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줘. 이대로 보낼 순 없어." (울부짖는 어머니)

⑦ 부친 상 이후 집이 어렵게 되자 형사로부터 계속 전화가 와서 괴로워 한 점.

◎ 유고글

<편 지>

사랑하는 어머니께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더운 날씨에 몸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몸 건강합니다.

아버지한테서는 지금도 전화 자주 옵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한다해도 솔깃해서 속상해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다거나 해도 깨끗하십시오. 저는 죄인이 아니니까요. 어머니나 저나 이땅의 핏박 받는 민중입니다. 왜, 뼈빠지게 일하고

고생해도 우리는 항상 못 살아야 합니까? 어떤 놈들은 한 번 술값에 몇 백만원씩 쓰고, 골프치네 어쩌네 하는데, 왜, 우리는 단돈 몇천원에 찢절매야 합니까?

우리의 정당한 몫, 빼앗겼던 우리의 자리를 찾자는 데, 왜, 잡아다 가두는 겁니까? 그것도 평생 헤어지지 못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러는지. 누가 진정한 죽일 놈들인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쥐꼬리만한 이익에 매달려 찢절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얻어야 될 것을 내팽거 둔 채 자신들만의 안이한 생각과 눈앞의 이익과 두려움에 찢절매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해도 너만은 하지 마라." 이게 솔직히 모든 부모님들의 생각이겠죠. 자식들도 부모님의 이런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네가 생각해서 진정 옳다고 믿어지고 남들이 다 한다면 너도 빠지지 말고 해라" 최소한 이렇게 말입니다. 집은 이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달 가까이 있으면 나가게 될텐데 그때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하죠?

민수형하고 동국이한테 말해서 집 좀 옮겨 달라고 하십시오.

1991.7.22

못난 아들 승필 올림

이 상 렬 (당시 26세)

墓 穴 장



1966년	경북 상주 출생
1985년	상주고등학교 졸업
1986년	공장일과 막노동 생활
1987년	송실대 화공과 입학
1987년 7월	6월 항쟁 관련 구속영장 발부받음
1992년	송실대 아간강좌 부총학생회장 당선
1992년 4월 12일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운명
1992년	제 6기 전대협 영웅상 수상 (송실대 박현민 동지, 이지문 중위와 함께)

◎ 동지의 삶과 죽음

이상렬 동지는 상주에서 3남 2녀의 막내로 태어나 85년 상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87년 송실대에 들어오기 전 2년 동안을 구로공단의 닭장집에 살면서 노동자의 삶을 걸어왔으며, 1년은 매형의 이발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 송실대에 입학하자마자 6월 항쟁의 거리를 힘차게 달리면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으며, 이로 인하여 수배 생활을 겪고 난 후 군에서 3년을 보내고 복학하였다. 동지는 복학한 후에도 야간대학 부학생회장으로 책임하면서 솔선 수범하는 자세로 학우들과 만나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그러던 중 지나친 과로로 자취방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하였다.

그럼 상열아

네 별은 무얼까

흐린 눈 들어 하늘을 보네

그리 빛 많이 나지 않고

여름 농활 모시던 네 손처럼 특특한

그런 별 하나 없을까

고개들어 서성이는 교정의 오밤중

인문관 야간 강좌엔

여기저기 별이 뜨네

반짝반짝 손을 드네

<이상렬 동지 5주기 추모 자료집中에서>

◎ 동지를 생각하며

별

사람은 죽어 별이 된다는 말

어렸을 적 얼핏 들은 일 있어

학관 옥상 점점이 바늘 끝 따가운 건

신나 불길 흠뻑려 간 래전이 형 별이고

과학관 위 우렁우렁 큰 목소리 물결치면

제적 학우 복적투쟁에

목이 쉬어 목이 쉬어

덜컹 심장도 쉬어

떠오른지 얼마 안된 현민이 형 별이겠지

◎ 추모글

<시>

동지애의 노래

(가는 길 험난하다 해도)

상열아 음치였던 널 구박하며

이 노래 불렀었다.

집행부 회의 끝나고 술 한잔 걸치면

음치야, 널 지목해 이 노래 시켜 놓고

한 번 더! 한 번 더!

놀려대곤 했었구나

(시련의 고비 넘으리)

불바람 휘몰아쳐 와도

장대같은 스물 일곱
 땅을 기는 질경이로만 피어
 죽으나 사나 땅으로
 꿈속에서도 학우에게로 새벽 공기 휘저어 학생회실
 청소하며
 라면 두 개, 대충 한끼
 검은 얼굴엔 허연 비집 꽃
 경상도 깡촌 보리 문당이 음치야
 그래도 넌 학우들에게 보급할 노래라며
 설새 없이 흥얼거리곤 했었지
 (생사를 같이 하리라)
 너 떠난 날 상열야
 영안실 알싸한 국화꽃엔
 노란 단내가 났단다

이 녀석아
 넌 정말 떠난거나
 영영 떠나버려
 다시는 우리들 구박받으며
 짓궂은 장난에도 품 넓게 허허 웃으며
 머리 굽적일 수 없는거나
 시린 사월 임진강에
 뿔가루 등등 띄워 보내고
 나는 갈대줄기나 꺾어와서
 이렇게 추모시를 써야 하는거나
 (다진 맹새 변치말자)
 (다진 맹새 변치말자)
 ()안은 「동지애의 노래」의 가사임
 <이상열 동지 5주기 추모 자료집中에서>

박 현 민 (당시 25세)

墓 용인 가족공원 묘지



1967년 부산 출생
 1986년 2월 장훈고 졸업
 1986년 3월 송실대 영어영문과 입학
 1987년 6.10항쟁시 시위도중에 3도 화상을 입음
 1988년 송실대 기독학생회 회장
 1989년 총학생회 집행부 활동
 1989년 12월 군입대
 1990년 3월 제적
 1990년 9월 의가사 제대
 1991년 미등록 제적생 복적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
 1992년 4월 2일 총학생회 산하 미등록제적생 복적대책위로 활동중 과로로 입원
 월간 '농민문학' 신인상으로 등단
 1992년 4월 28일 새벽 3시 40여일간의 투병 끝에 운명
 1992년 4월 30일 송실대 학생장으로 장례
 제6기 전대협 영웅상 수상
 (송실대 이상열 동지, 이지문 중위와 함께)
 송실대 명예복직. 송실대 교정에 동상건립

1993년

◎ 동지의 삶과 죽음

87년 6월항쟁에서 화상을 입기도 한 박현민 동지는 군에서 얻은 심장병으로 의가사 제대를 하여, 복적을 준비하던 중 제적된 사실을 알고 700여 제적생들과 함께 문교부와 학교 당국의 부당한 제적처리에 맞서 복적 투쟁을 전개 하였다. 3월달부터 정문앞 벽글씨 붙이기 등 온갖 궂은 일을 맡아 하였고, 동지가 앓고 있던 병의 재발 위험을 알고서도 며칠동안의 밤샘과 무리한 일로 병이 재발하여 4월2일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체온이 40도를 오르내리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상태에 빠져 결국 학원 자주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였던 학우들과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한 채 세브란스 종합병원에서 운명을 달리 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1학년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중생의 구절을 들려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꼭 보고 싶단 그의 소망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자주 학원의 의지를 뿌리고 간 현민이의 삶은 어찌면 진정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87년 6월 항쟁때 누구보다 먼저 대오의 선두에서 화염병 화상을 입고, 박물관 잔디밭을 뒹구르면서도, 열

이 39도에 올라 있으면서도, 친구와 동지들에 대한 신뢰와 기쁨의 눈빛 흐트러 뜨리지 않던 그의 장난기 많은 모습은 결코 떠나보낼 수 없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임을 기억하게 한다.

◎ 유고글

<시 1>

여름 철새의 겨울

지금은
 우리의 계절이 아니다

나래를 접으렴

문드러짐으로 마주서기엔
 스스로 수척스러워지는
 차가움이다.

울타리 밑으로 냉소하는 달빛을
 울먹이는 가슴으로 품는
 철새.
 철새여.

나래를 접으렴

아직 얼어붙지 않은

창조의 꿈만은 간직하고

낮선 계절의 유혹에 눈 감으렴

<시 2>

무희(舞姬)

흔들리는

나비를 쫓다가 지쳤는가

가벼운 발을 가진 여자여

죽은 '묵시(默示)'의 무덤을 떠나

밀물을 맞는 사장(沙場)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느냐

그대는

미쳐버린 행복에 휩싸인 가슴

여자여

발목이 물에 잠길 때

그대의 춤은 가장 자유로워라

춤추는 여자여

높이, 더욱 높이 올라

해방되어야 할 자의 모습으로

파랑게 터오는 동녘을 밟아다오

<편 지>

임신년

통일 단결의 기운을 드높여 기간의 성과물과 사업을 총화하며

민주 정부 수립의 길로 힘차게 내 딪을 새해

내가 우리가 담당해야 할 그 작은 일부분을 고민하고 그 자리를 지키세

벗이여!

땀흘리고 노력한 그 모습으로 뜨겁게 포용하세

현민이도 복적되고 대규가 계획하는 일 꼭 성취하

고 반드시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멋진 92년을 만드세
임신년 새 아침에 민(동지의 필명)

◎ 추모글

<글>

그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그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그는 '학생회장' 같은 커다란 직책을 역임한 바 없으며, '감옥' 한번 갔다오지 않았고, '투쟁위원장' 한번 해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를 열사라고 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일간지가 그의 죽음을 보도했고, 학교 장례식 때에도 수백명의 동료, 선배들이 그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 했다.

사람은 죽어서 평가받는다 그랬던가?

그의 장례식은 그 어느 누가 주도해서 만든 장례식이 아니라 그의 치열했던 삶의 궤적에 의해 만들어진 장례식이었던 것 같다.

뛰어난 문예인, 박현민

고등학교때 문학소년이었던 그는 1학년때 기독교 관련 동아리(기독교학생회)에 가입한 이후 그가 가지고 있던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동아리 마당극 대본은 직접 쓰고, 연출, 출연, 음악까지 도맡아 했는데, 식민지 조국의 한과 희망을 그린 "코메리카", 마당극으로는 드물게 통일 이후의 조국을 내다 본 "아리랑 연방 공화국",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하나인 민중성을 사회적으로 표현한 "91년 예수년"등이 대표적인 것이며, 매 해 1,000명 이상의 학우들이 그의 마당극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

애국적 종교인, 박현민

89년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KSCF) 활동을 할 때 기독교 학생운동 내부의 잘못된 경향과 긴 투쟁을 벌이면서 상대방 진영의 온갖 비난과 비방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끝까지 모순과의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투철한 실천가, 박현민

그러나 그가 글이나 써대고 그럴듯한 말이나 하고 다니는 골방 이론가는 아니었다. 그는 자기가 알고 있

는 바를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87년 6월항쟁때 교문돌파를 위해 화염병을 들고 선두에서 싸우다 전경이 던진 돌에 화염병이 깨져 팔 전체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검고 흉한 팔을 갖게 되었지만 그는 그 흉터를 비판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고, 더구나 자랑스러워 한 적도 없었다. 그는 성격이 순해 누구와 다투거나 싸우는 법이 없어 겁이 많은 듯이 보일지도 모르지만 가두시위에는 빠진 적이 없었으며, 언제나 앞장섰고, 백골단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제로 91년말부터의 미등록 제적생 복적투쟁은 '현민이가 아니면 존재할 수도 전개될 수도 없었던 투쟁'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았다. 차가운 본관앞 텐트 농성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미등록제적생 복적투쟁은 전적으로 그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참된 사람, 박현민

누구라도 포기했을 후배를 1년여에 걸친 설득, 교양으로 애국의 길에 들어서게 한 인내력과 다정다감함을 그는 가지고 있었으며, 군에서 진지구축작업으로 심장병이 발발해 국군통합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때에도 면회객들에게 자신의 건강보다는 지금 소련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고 (당시는 페레스트로이카와 동구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였을 때이다) 묻고 관련서적을 보

안검열을 피해 몰래 숨겨 놓고 읽을 정도로 현실감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학습열 또한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학교 다니면서 세가지 별명을 가졌었다. 1학년 때에는 파쇼만 타도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다며 자신을 "파타"라 불러 달라고 했고, 2학년때에는 '철학에세이'와 '나의 라임오렌지 나무'에 감명 받은 후 아침 햇살같이 되고 싶다고 책의 출판사 이름과 중의적인 의미로 '동녘'이라 불리었으며, 복적투쟁부터는 새벽녘 교문앞 담벼락에 구호나 집회 관련글들을 커다랗게 써 붙여 놓아 (이것을 요즘은 데코레이션이라 하기에) '데코 박'이라 불리었다. 맹세컨데 승실에는 그가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도 없음을 단언할 수 있다.

병으로 이등병 제대를 하고 어느 술자리에서던가 그가 불렀던 -- 군에서 힘든 행군도중 마음속으로 불렀다던-- '동지애의 노래'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우리는 그를 무어라 불러야 할까?

애국학생 박현민, 참다운 애국자 박현민! 이것이 그에게 가장 합당한 칭호가 아닐까...

<5주기 자료집 중에서>

윤재영 (당시 27세)

墓



- 1965년 8월 13일 충남 공주군 출생
- 1984년 충남대학교 철학과 입학
- 1987년 충남대학교 총학생회장
- 1987년 8월 전대협 결성주도(제 1기 전대협 부의장)
- 1987년 12월 12일 12·12반란 규탄대회 투쟁 중 구속
- 1988년 2월 출소
- 1989년 수배중 대전 새길 청년회 창립 주도
- 1992년 10월 10일 노동운동을 하던 중 천식으로 인해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탁구장에서의 만남 이후 우리는 급속히 가까워졌고 드디어 유성의 모다방에서 회합하여 (이날의 회합에는 5명이 참여했다) 청년운동에 대한 각자의 견해와 계획을 토론했었다. 몇번의 계속된 만남속에서 모임의 성격은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토론 결과는 '청년운동을 소수에서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할 것, 회원을 주인으로 세우는 모임으로 할 것, 청년대중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하는 모임이 될 것' 등 청년운동의 대중화와 지역운동의 강화발전으로 모아졌다.

사실 지금 생각하여 보면 사회 초년생들이 내놓은 계획치고는 거창하였지만 5명의 우리들은 쉽게 의기투합하여 그 해 3월부터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각자 다른 개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토록 쉽게 뜻을 맞추고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데에는 재영이의 노력이 각별하였다. 동료의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 성급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자세나 사소한 논쟁에 토론이 맴돌 때는 핵심과 원칙을 끌어내는 등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뜻을 관철할 줄 아는 동료였다. 이러한 그의 자세는 이후 활동 속에서 회원들의 생활이나 고민을 놓치지 않고 듣고 이해하고 도우려하여 청년회 활동이 풍부해지고 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동료의 회상 중에서〉

◎ 추모글

〈시 1〉

동지들이여!
우리 이제 압니다.
흐린 날에도 별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민족해방 투쟁의 길에
반역의 먹구름, 분열의 비바람 세차게 몰아쳐도
자주의 별, 민주의 별, 통일의 별은
흔들림없이 그 자리에 빛나고 있음을...
우린 이제야 깨닫습니다
참된 삶은
자신을 위한 안락이 아니라
혁명의 길임을...
조국과 민중에 바치는 부끄럼없는
삶임을...

이제
동지들의 묘를 덮은 잔디처럼
밟아도 되일어서는 푸른 잔디처럼
동지들은 죽어도 죽지않는 태양으로
우리는 민족해방의 거대한 뿌리로 살아
찬란한 조국통일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시 2〉

재영아
불퇴전의 투사가 아니라도 좋다.
소탈한 웃음 나누는 벗으로 곁에 있다면
이렇게 변명으로 고민하지 않을텐데

네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일년이 되는구나
망각의 세월을 보내다 이제 주섬주섬
너의 이야기를 챙기는구나

어설피고 부끄럽지만 가슴 한 곳에 고여있는
벗들의 그리움이 사랑이
한줄기 희망으로 다시 피어났으면
정말 좋겠다.

재영아

〈93.10.10. 故 윤재영 동지 1주기에 부쳐〉



1969년 10월 24일	전남 여천군 출생
1989년	순천고등학교 졸업 광주교대 윤리과 입학, 교육동아리 '아희스랑' 참여
1990년	동아리 연합회 간부활동
1990년 10월	교원 종합대책안 반대투쟁 시 직격 최루탄으로 다리골절 부상
1991년	2학기 총학생회 사회부 차장으로 활동
1992년	4학년 과 대의원으로 활동, 북한이해 분과장 역임.
1992년 11월	광주전남 교사 청년회 간사로 활동
1993년 9월 8일	분신 항거
1993년 9월 9일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고민해왔던 이경동 동지는 내성적이면서도 때로는 누구 못지 않게 활발하게 생활했으며, 자치공간의 청소를 도맡아 할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하였다.

책임감이 강했고, 자기 자신보다는 동기나 후배들을 먼저 챙기며,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적어 그들의 삶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다. 임용고시 철폐 투쟁기간 동안 모든 학우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보다 항상 깨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자며 다짐했다.

분신하기 일주일 전의 생활을 살펴보면 이경동 동지가 자신의 삶을 정리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동아리 방에서 책을 정리하며 동기와 후배들이 갖고 싶어하는 책들을 나누어 주었고, 부모님과 할머니께 드릴 선물을 마련하는가 하면 강경대 열사를 찾아 갔었고 5일 일요일 오전에는 망월동에 참배를 다녀왔다. 오후에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할머니께 선물을 드리고, 6일 아침 일찍 광주에 올라와서 동기와 후배들에게 선물을 주었고, 7일 저녁에는 10여명의 동기들에게 안부전화와 더불어 열심히 생활해 나가라며 격려하였다.

이렇듯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의지를 재차 다져가며 죽음을 준비하였다. 8일 12시 45분경 음악관 뒷편에서 임용고시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기만적인 김영삼 정권을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아픔을 도려내지 않고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를 감싸안았고
참된 삶을 고민하며 치열하게 청춘을 살아왔던 형
우리가 김영삼의 기만적인 여론정치에 속아
무감각의 시대를 살아갈 때
형은 이 땅 식민지 현실을 아파했고
우리가 노예교사, 지식판매자의 길을 강요하는
임용고시를 맞아 "싸워도 대안이 없다" "승리할 수
있을까" 말하며

때론, 도서관으로 때론, 술집으로 향했을 때
형은 우리의 수동적이고, 대안이 없음을 정권이 요구하는 대로

개별화되는 것을 그리고 이땅의 교육현실을
가슴 아파하셨습시다.
형이 준비한 투쟁은 지금도 눈물짓게 하는
분신항거였습니다.

우리는 형을 죽음으로 물고간 이땅 현실과 우리들의 문제, 이땅
교육을 파행적으로 물고가는 임용고시에 이악스럽게 달라들어
형의 뜻대로
반드시 임용고시를 끝장냅시다.

형의 죽음을 애도하며 4학년 한 학우

◎ 유고글

〈유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먼저 가는 이유는 먼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언론의 조작에 현혹되어 버린 국민들이 각성하도록 하는 것이요, 두번째는 한반도의 원수였던 외세가 남한의 심장부에 문명시대에도 남아있으며, 주둔하는 군대에는 비용을 늘려주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조금만 요구를 하더라도 집단 이기주의라고 호도하며, 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알 수가 없으며,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우수교원 확보라는 미명하에 예비교사들을 대학교육보다는 학원으로 달려가 단지 지식을 암기하여 지식을 팔아먹는 교사가 되게 하려고 하고 있기에 제가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지식만을 가르치는 교사로 전락했을 때 그 교사 밑에서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됩니까. 올바른 교사관과 풍부한 지식, 아이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어야만 올바르게 커가는 아이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교사를 길러내는 교육대학이 파행적으로 운영이 될 때 초등교육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교육은 파행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임용고시가 철폐되고 올바른 임용제도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저도 초등교사가 되어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지만 이런 제도 속에서서는 지식 전달자 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글〉

우리는 교육계에서 개혁을 해야합니다. 썩은 것을 도려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도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 힘들지만 하나로 단결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갑시다.

풍향골에서 먼저 일어나 전국의 교대가 일어나고 전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저의 행동이 기폭제가 되어서 완강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대와 교육을 살려냅시다. 그리고 승리하면 풍향골 곳곳에 민들레씨를 뿌려 주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위하여 힘을 쓰겠습니다. 민족자주교육과 통일교육, 인간교육이 실현되는 그날이 올때까지 열심히 살아갑시다.

미국없이 더 잘 산다. 주한미군 몰아내고 우리교육 살려내자!!!

고통분담 허울속에 교육비 삭감 왜 말이나 교육재정 5%확보하자!!!

주둔비는 증액되고 교육비 삭감속에 나라꼴이 엉망이다. 교육환경 개선하자!!!

임용고시 철폐하고 초등교육 정상화하자!!!

예비교사 선봉투쟁, 4천만의 단결투쟁 우리교육 살려내자!!!

임용고시 철폐하고 민주적 임용고시 쟁취하자!!!

예비교사 단결투쟁 우리교육 살려내자!!!

참교육 염원 49년 9월7일 경동이가

◎ 추모글

〈추모사〉

알았습니다. 5박 6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분명히 알았습니다. 온몸이 타들어 가면서도 불길이 목구멍을 헤집고 들어올 때도 열사는 입을 다물지 않고 말라 비틀어져 갈라진 입술을 달싹거리며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개혁을 때려치우고, 참민주 대개혁을 실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혈맹 우방도 민족의 이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말은 달콤한 감언이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실천의 요체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열사여!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열사가 분신하기까지의 그 고뇌에 찬 시간들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열사의 고통, 피, 땀, 눈물 한방울까지도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열사의 손톱조각, 머리카락 한오라기라도 의미없이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열사가 가슴 뒤에 우리는 무척 아픈 상처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러워했지만 그만큼 성숙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로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과 깃발아래 총학생회 깃발아래 하나되어 소리높여 외쳐왔습니다.

교육대개혁 쟁취하자!
민주대개혁 실현하자!
주한미군 몰아내자!

〈동지 추모집 추모사 中〉

한 상 용 (당시 23세)

墓 광주 망월동 민주 열사 묘역



- 1970년 전남 해남 출생
- 1990년 광주교대 사회과 교육과 입학. 노래패 '에루일씨' 가입
교종대안 분석을 위한 1학년 대책위장 역임
- 1992년 사회과 교육과 제5대 학생회장 역임
- 1993년 동아리 ESF 가입
초등 교육 개혁과 교대 교육정상화를 위한 4학년 대책위원회 위원장 활동
- 1993년 11월 10일 분신·투신,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한상용 동지는 우리들의 삶은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어렵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였고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려 노력했다. 참된 삶과 주어진 삶에 항상 고민하며 참교육을 갈망하는 예비교사로서 잘못되어가고 있는 초등교육을 바로 잡고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투쟁했다. 그러던 동지는 금식을 하고 임용고시 반대투쟁 승리의 염원을 담은 종이학을 접는 등 지속적인 투쟁을 하다가 1993년 11월10일 10시 경에 분신하여 전신 3도 화상과 내출혈로 전대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운명하였다.

◎ 동지를 생각하며

동지여
대답없는 이름이 되어 우리 걸을 떠나셨습니까
당신이 기도하던 그 분 품으로 떠나셨습니까
외로운 투쟁이 너무도 안타까워
차마 말 못하고 어둡고 차가운 길로 가셨습니까
평안의 안식처로 찾아 가셨습니까
.....

열사여
이제 우리 모두가 종이학을 접겠습니다
종이학 한 마리에 교단의 꿈을 담고
종이학 한 마리에 아이들의 사랑을 담고
종이학 한 마리에 그대의 뉘까지 담아

참교단에 서겠습니다

이제 그대는 교육의 어둠을 밝히는 불새가 되었습니다

무관심에 사랑으로
흔들리는 양심에는 정의로
천사백의 가슴에
투쟁의 불꽃을 붙인 열사여
오, 불새여! 고이 잠드소서

◎ 유고글

〈유 서 1〉
존경하는 총장님께
많은 시간이 있었고 예의를 차려 총장님께 뜻을 전했어야 했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무기한 수업거부를 하면서는 특히나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의 심의를 받아들이는데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여러 교수님들과는 잘못된 관계의 골이 더욱 더 깊어지고 있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저희들은 단지 발령이나 한자리 더 보장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장님 저희들은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투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진정으로 사랑이 오가고 서로 아껴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랑 공동체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행정적 오류들을 학생들에게 책임전가하고 올바른 장기적 대안이 부재한 현 교육정책속에서 교육 홀대 현상은 더욱 더 표면화되고 있음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생을 담아야 할 우리 거처를 좀더 올바르게 만들어내자는 것입니다.

총장님, 저희들은 떳떳하게 교단에 서고 싶고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교육을 올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교수님들과 불화가 잘못된 이해 부족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총장님, 총장님이 저희를 믿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총장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총장님 이하 여러 교수님들이 불철주야 저희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것도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은 초등교육의 발전을 바랍니다.
저희들은 목적대로서 교대가 올바르게 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간에도, 교수님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열심히 일하고, 의를 위해 헌신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귀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총장님, 학교 당국과 학생들 간에 서로 공통된 합의점들을 찾아내고 서로 위하면서 함께 열심히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부일체라고 하였는데, 제자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먼저 발걸음을 옮김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한상용 올림

〈유 서 2〉
1만 6천 교대학우들에게
조금은 무겁게 펜을 듭니다.

참교육! 저희 1만 6천 학우들의 삶입니다.
여러 학우들, 어느 때 찾아가더라도 따뜻하게 반겨 주었고 웃음지며 서로 헤어지고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들 혼자의 힘은 미약하나 모두가 하나되면 그 힘은 방대합니다. 동지여러분! 우리 원하는 게 있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합시다. 하나된 목소리로 큰 힘으로 힘차게 투쟁합시다. 나약하고 안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떨쳐버리기 위해 투쟁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허물을 벗어버리기 위해 투쟁하고 우리의 꿈을 펼치기 위해 투쟁하고 이나라의 발전을 위해 투쟁합시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승리의 목소리로 화답할 것입니다.

첫단추 끼우는게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국민들에겐 힘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지역적 수준의 차가 아니라면 11개 교대가 똘똘 뭉쳐 하나의 모습으로 투쟁합시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1만 6천 교육동지들과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항상 쉬지않고 고민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발걸음을 옮길때는 힘있는 모습으로 열의에 찬 삶을 설계합시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 싸움입니다.
꿈이 있는 교사로 떳떳한 교사로 이제 여러분의 가슴속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11월 10일 한상용 올림

〈유 서 3〉
김영삼 대통령께
이 글이 대통령께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 깊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대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짧고 부족한 지 모르나 이 글을 띄웁니다. 어르신! 어르신께서 문민정부의 첫 주자로 사회개혁을 외치며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 살리기 운동에 주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개혁조치로 많은 국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우선 순위를 경제에 두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문에 두고 싶고, 개혁들을 실행한다면 국민들의 그리고 교육당사자들의 이해와 요구, 바람 등을 충분히 담아내는 국민을 위한 개혁을 하고 싶습니다.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이 지도자의 순발력이라면 뛰어난 지도자는 내일을 또한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의 발전을 가져 오고 나아가 부강한 나라

를 이루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감히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되고 풍족한 물질적 삶이 보장되더라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렸을 때 산업사회의 병폐는 더욱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전 발전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퇴보라 생각합니다. 사회는 가면 갈수록 향락, 소비, 퇴폐 문화가 만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회, 인간 질서가 무너지는 사회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학교가 올바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진정한 나라의 발전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비전있는 젊은이들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꿈이 있어야 2세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교사는 전문적으로서 사람을 교육하는 자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울 수 있으나 그 지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오직 인간적 접촉으로서만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교사가 바르게 서지 못하는 교육은 2세들을 바르게 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2세들이 꿈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어르신! 꿈과 사랑은 책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고 행하면서 배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르신! 그래서 주장합니다. 목적대로서 교대를 올바르게 세우고 이 속에서 양성의 과정을 강화하여 전문성과 인격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빨리 개선하여 전인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학교를 바르게

<유서의 전문을 자료 미확보 관계로 실지 못합니다.
- 편집자>

<낙서장에 남긴 글>

오늘 하루도 힘겨운 하루임을 자각한다.
이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에서도 무수히 많은 생명력이 존재할 것이고 아름다움을 포함 것이다.
보지 못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해 버리는 모순이 존재함을 자각한다.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후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는다. 너무나 쉽게 지워져 버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생각해 주고 아껴주는 마음 속에서 새롭게 자각하고 힘을 받고 새롭게 태어난다.

생은 아름다운 것이다. 지금의 마음을 평생 지니고 살고 싶다. 모두가 힘차게 희망을 가꾸면서 작은 행복을 느끼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꾸고 싶다.

패배는 싫다. 허무도 싫다. 이기도 싫다.

삶은 투쟁의 연속이라 한다.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하루 하루의 건강한 모습 속에서 따뜻한 봄별의 햇살처럼, 밝음처럼 살아 나가면 좋겠다.

스스로도 노력하고 싶다.

이 발걸음이 닿지 않은 곳의 신비를 가슴에 새긴다. 너무나 조용한 밤이다. 지금도 찬 이슬 방울은 맺힐 것이고 새 생명의 꿈틀림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 보자.

이기의 더러운 마음을 차버리자.

어머니의 눈에 고여 있는, 자식의 내일을 걱정하는 사랑의 눈물 방울을 소중히 가슴에 새기자.

힘겹지만 주저하지 말자.

바로 내일을 생각하자.

아름다운 것이다.

새로운 힘을 갖게 하는 후배들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다.

◎ 추모글

<글>

진주 못난 벗이 고 한상용 영전에 드립니다

상용씨

어제는 강의실에 죽치고 앉아서 하늘을 보고 부끄러움에 주체 못하고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회의하면서 너무나 인간미 넘쳐 보이는 상용씨 보고는 많이 좋았어요. 살맛나는 세상이다.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싸움은, 이번 싸움은 즐겁다고, 많이 힘들어도 좋다고만 느꼈습니다.

한달 반이 흐르고 난 뒤, 내일은 상용씨 장례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어제는 열두시간을 잤어요. 상용씨 때문에 내 기억력이 마비되어 버렸거든요. 눈도 머리도 무겁고, 아프고, 그냥 자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난 아직도 상용씨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을 것 같애. 내 친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국 여

행 갔다고 하는 것 같다고요. 원래 떨어져 살던 사람이니까. 사진 한 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난 배신감을 느껴요. 어제 흑백 사진으로 처음 본 사진에서는 상용씨는 별로 매력적이지 못했어요. 그 땐 웃으면서 새벽까지 우리를 웃게 해주면서 경직된 얼굴들을 풀어 줘 놓고, 이제는 억지로 웃어 불려고 하던 내 얼굴을 굳어 버리게 하니까.

상용씨 보세요.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죽음이란 단어를 자꾸만 곱씹어 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걸까?

정말 영혼, 넋이라는 게 있어 어디론가 다시 가는 것은 사실일까? 상용씨 정말 어디에선가 우리를 지켜 보고 있는 것일까?

육신이나마, 검게 타버려 시커먼 재로 남은 육신이나마, 보내는 길에 함께 하고파 이렇게 달려 왔어요. 형

이 그토록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그 길을 따라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기 아이들이 지고 가는 것이 당신인 듯 합니다. 상용씨는 이미 아이들이 지고 가는 해가 된 거예요.

제가 교단에 서면 못 다한 형의 꿈을 일구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형이 가는 길이 초라한 걸 생각하니 자꾸만 슬퍼져요. 그렇지만 영원히 제 가슴속에 살아 계셔야 해요. 영원히.

1993년 11월12일
당신을 보내는 슬픈 나의 생일에 경련

이창환 (당시 23세)

墓



1971년 9월 7일 출생
 1980년 이리 황등고 졸업. 전북 산업대 경제학과 입학
 1991년 전북 산업대 경상대 사회부장
 산업대 개혁안 철폐를 위한 투쟁부국장 역임
 1992년 노래패 「휘파람」창설
 1993년 전북 산업대 8대 총학생회 사무국장 역임
 1994년 1월 27일 겨울 농활 수행 중 사고로 운명

◎ 동지의 삶과 죽음

1994년 1월 이창환 동지는 옥구군 회현면으로 후배 4명과 겨울농활을 수행하러 갔다. 그러던 중 27일 저녁 같이 식사를 하던 농민 아저씨가 실의에 빠져있는 것을 보고 쌀투쟁의 희망을 주기 위해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후배들은 밤 늦게까지 이창환군이 돌아오지 않자 찾아나섰고 아저씨의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 이창환 동지의 주검이 발견되었고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뇌진탕으로 사망하였거나 실신하여 동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 동지를 생각하며

<추모시>

이렇게 가는구려
 온다 간다는 말 없이
 이렇게 먼저 가는구려

어릴 때
 병져 누우신 어머니 앞에서
 "엄마 우리는 언제 곡소리 해" 하더니
 어머니를 남겨두고
 젊은 형이 먼저 말없이 가는구려

바르게 살아야 한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며

우리앞에 거목으로 다가서더니
 또 이렇게 온다간다는 말없이
 젊은 청춘이 먼저 가는구려

차가운 물에 손적시기를 싫어하는 겨울날 이른 아침
 사랑하는 후배 동료들을 위해
 쌀을 씻으며 호호 불던 차가운 손이
 이제는 온몸으로 번져버려
 차갑게 언 땅으로 가는구려.

쌀이 개방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며
 쌀개방 만큼은 우리 손으로 막아야 한다며
 강의실로, 거리로, 농촌으로 뛰어다니던
 형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쌀개방만이 우리 주위를 감싸는구려.
 언제나 주일이면
 자그마한 교회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던 형
 곱고다 언덕 예수의 죽음처럼
 그렇게 살고자 하던 형이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렇게 먼저 떠나는구려.

신건수 (당시 24세)

墓



1970년 7월 7일 서울 출생
 1989년 2월 서울 송문고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서울 송실대학교 기계공학과 입학
 1990년 8월 송실대 가톨릭 학생회 제17대 회장 역임
 1991년 6월 서울대교구 카톨릭 대학생연합회 제6대 남부지구장 역임
 1994년 5월 2일 부산 노동절 집회 참석후 상경도중 불의의 사고로 운명

◎ 동지를 생각하며

갈라진 대지에 서는 그대

1
 분노의 그릇은 깨지기 쉽고
 인내의 밤은 그 끝을 세기 어려우니,
 임진 그대 기억 풀며 다짐하는
 기약은 이슬보다 먼저 사라지리

5월 제단에 바친 영혼 아직도 모자라
 하늘은 그대의 육신 거두었는가.
 스물넷 푸른 사제복에 그리움이 많아
 초록빛 강물은 아직 그대 발길 불드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언어가 침묵하는 그날까지
 고작 찬바람에 웅크리며 외면하며,
 무엇을 분노하고 무엇을 인내할지 몰라
 오늘 그대 홀려보내지 못하는가.

2
 팔이 짧아 안을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눈이 나빠 볼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발이 없어 다가서지 못한 것은
 아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한 것은

아니다, 비틀거리는 새벽의 눈길에 남은
 말을 잃은 노동자의 발자국들에 무릎을 꿇어
 그대 외쳤다. 신앞에 홀로 설 때까지
 나 분노는 민중을 외면하지 않으리라.

그대 마지막 뿌린 흙빛 씨앗 하나
 내시에 냇물을 타고 흘러 쓰러진 자의 가슴마다
 꽃을 피우는 그 날, 해방의 날에
 그대 율법과 사랑은 한줄기로 흐르리라.

◎ 유고글

<동아리 일지에>

1994년 2월 16일 수요일 분노.

아무리 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이라도 어느 한 부분에서는 진지해지기 나름이다. 언뜻 생각만 해도, 많은 단어가 떠오른다. 어머니, 나의 인생, 친구, 비밀, 그중 사람을 가장 진지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 앞에선 사람 들일 것이다. 94년은 문민정부의 허위를 느끼게하는 죽음이 계속 뒤를 잇는다. 저번 전국 농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올라오던 경북농민회 2분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셨고 늙은 몸에 통일을 위해 애쓰신 '문익환' 목사님이 과로로 사망하셨고, 2월 13일에는 민족시인 김남주 시인이 췌장암으로 사망하셨다. 투병 3개월 만이다. 16일 오전 8시, 같이 일하는 동지들과 경기대학교로 영

오원택 (당시 21세)



1974년 전남 장성 출생
 1992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입학
 1993년 관광경영학과 연대사업부장
 관광경영학과 부학생회장(2학기)
 1993년 9월 21일 경기대철때 부상, 입원
 1994년 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
 1995년 1월 군입대
 1995년 3월 17일 군복무 중 운명

결식에 참석했다. 차가운 아침 기온에 3-40여명의 참석자는 조용히 가시는 불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다. 30에 감옥에 투옥되어 40의 나이에 근 10여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10년 지인이던 분과 결혼하여 현재 5살 '토일'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일반사람의 47세는 사회에서 안정적 위치를 가지며 원숙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나이이다. 그러나 김남주님은 그 나이에 어머니를 남기고, 아들을 남기고, 부인을 남기고, 그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의 애도속에 떠나갔다.

그분은 상당히 시를 좋아하셨다. 스스로 말하기를 혁명적 열정과 이론뿐 아니라 그 속에 시가 없으면 안된다 하였다. 시란 인간의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다. 아마도 그분의 열정적 삶 또한 투철한 혁명적 삶속에 시의 감성이 결합되었으리라.

영결식의 참석속에서 가장 깊은 감동은 그분의 유언적 성격을 띤 육성 녹음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분은 70년대에 또한 5공때 독재에 맞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에서 일하시다 투옥되었다. 그 활동의 연장에서 남기는 말씀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만세!

반민중적, 반기독교적 모습에 대해 비합활동으로 끊임없이 살아오신 분이 남는 자들에게 또한 바라는 말이였다.

순간 거기에 참석한 이들의 숙연함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 모양이다.

우리의 한 동지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간의 공동의 마음(고통, 열정...)을 느끼며 눈물이 흐르더란다. 마흔이 넘은 어머니 품에 이끌려 무엇인지도 모른채 싱글싱글 웃기만 하는 토일의 얼굴위로 눈물에 젖은 그분을 지나쳐 현화하러 가는 이들의 모습은 순례지의 모습이었다. 프란체스코 형제 여러분, 투쟁할 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왔던 그분의 말씀이 혹시 현재의 복음은 아닐까 합니다. 94년은 '한국 방문의 해'이기 보다는 '이웃 방문의 해'란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하나 하나의 삶속에서 예수의 해방을 이룹시다. 그래서 12월 31일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 나라 건설 투쟁 만세!"

◎ 동지의 삶과 죽음

오원택 동지는 92년 경기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하여 모범적이고 헌신적인 학교생활을 하였다. 그러다 공대 이전 운운하면서 폐쇄하려던 사학비리 주범 손종국과 모리배로 대변되는 재단에서 사주한 유도부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심한 후유증을 호소하다 95년초 입대 후 운명하였는데 부대측의 발표는 부대내의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숨졌다고하나 의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 동지를 생각하며

49년 10월 20일 수요일

(1994년이지만 그는 분단 49년 해방 49년이라는 의미로 년력을 "자주민주통일 진군 49"라 사용했다.)

올해도 저물어가고 가을도 다 지쳐가고 낮찍은 인자 살아나고 내 心身들도 살아나고, 나의 힘터도 살아나고.

외로운 病室이었다. 만 20일동안 가끔 다가와 주는 동지들이 있었기에 살아날 수 있었지만 병실을 뛰쳐나와 돌아온 校庭. 그리고 두달만에 돌아간 故鄕. 반가운 사람들. 그래도 다쳤다고 병원에 자빠져 있었다고 사람 대접 해주더만.

... 중략 ...

오늘은 서울.수원대 연대 집회 있는 날. 곧 출발해

야 헌디 사람들 풀이 별로 안된다. 오늘 투쟁 일궈내서 내일은 꼭 국회접수 해안디. 경기 학원 문제해결의 의지를 극명해안디. 기나긴 올해 학원 자주화 투쟁의 마무리를 야물게 해알것인디. 그리고 올해 승리를 발판으로 민족사학 건설에 박차를 가해안디. 지금 출발현단다. 더 썩야 썩것는다. 어찌것냐. 大義를 위함인디. 우리의 京畿를, 祖國을 위해선디.

◎ 추모글

낙서장에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땅에 미제의 그림자가 견혀지지 않았기에 미제를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 내 어깨에 지워져 있기에 학우 대중들이 존재하기에 나와 함께 투쟁의 한길로 가야할 학우들이 있기에 이러한 이유들이 있기에 식민지 조국의 암울한 현실속에서도 내 삶을 구가하고 잘 살아 나가려고 몸부림치고 학우대중을 만나 이야기하며 술을 구가한다.

(추모비에 쓰인 내용 - 1994년 5월 22일 날적이 중에서)